

연구총서 03-04

#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 재 진

통 일 연 구 원

#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사회화와 정치사회화의 관계 .....	4
1. 사회화 및 정치사회화의 개념 — 4	
2. 북한의 사회화와 정치사회화의 목표의 모순 — 7	
가. 사회화의 목표 • 8	
나. 정치사회화의 목표 • 13	
III. 개인숭배의 전개과정 .....	19
1. 소련의 개인숭배 제도 이식기 (1945년-1950년) — 19	
2. 권력투쟁기 (1950년-1967년) — 22	
3. 유일체제 확립기 (1967년-1972년) — 26	
4. 김정일 후계체제 준비기 (1972년-1980년) — 27	
5. 후계자 시대 : 김일성·김정일 공동집권 시기 (1980년-1994년) — 30	
6. 김정일 시대 (1994년 이후) — 31	
IV. 개인숭배의 이론적 정당화 .....	34
1.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 34	
2. 레닌의 전위당 이론 — 36	
3. ‘주체의 영도방법’ — 39	
V. 개인숭배의 전략 .....	41
1. 개인숭배를 위한 정치적 담론구조 — 41	
가. 항일무장투쟁의 지도자상 형상화 • 41	

나. 무오류의 지도자상 형상화	• 44
다. 사회주의 제도 및 주체사상의 우월성 선동	• 54
라. 인식의 시제 통제	• 64
마. 현재 문제에 대한 책임전가	• 71
2. 다양한 제도적 자원의 동원	— 90
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운영	• 90
나. 회상실기 교양	• 91
다. 극장국가화	• 94
라. '수령형상 창조'를 위한 문예정책	• 96
VI. 비판 없는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정치사회화 전략	..... 98
1. 조건반사이론에 입각한 정치사회화	— 98
2. 직장배치 통제권을 통한 정치사회화	— 100
가. 국가 통제 하에 있는 직장 배치의 특징	• 100
나. 직장을 통한 정치사회화의 결과	• 104
다. 직장배치 통제권의 두가지 의미	• 105
3. 물리적 통제를 통한 정치사회화	— 110
가. 물리적 통제	• 110
나. 암행감시	• 111
VII.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성과 및 영향	..... 113
1.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 전략의 효과 분석	— 113
가. 개괄적 평가	• 113
나. 전략별 효과 분석	• 115
2.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가 북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친 영향	— 117
가. 개인적 측면	• 118
나. 사회적 측면	• 123
다. 정치적 측면	• 132

라. 경제적 측면 • 133

VIII. 경제난 및 개혁·개방이 개인승배 및 정치사회화에 미친 영향 ..... 136

1. 경제난과 개인승배의 위기 — 136

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정치사회화에 미친 영향 — 139

가. 국가의존적 의식의 약화와 자력갱생적 의식의 강화 • 139

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인식의 확산 • 141

다. 사상중시에서 돈 중시 및 물질주의로의 변화 • 143

라.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 144

IX. 결론 ..... 145

참고문헌 ..... 150

## 1. 문제제기

2002년 10월 15일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7년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100%가 지지표를 던졌었는데, 불과 6개월 후인 이라크전쟁에서 후세인의 권력이 붕괴하자 이라크 국민들은 후세인 동상을 파괴하고 후세인으로부터의 해방감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후세인이 바그다드 함락 이후 도피하고 있다가 12월 13일 미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라크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를 지르고 축제분위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바그다드 함락 이후에 이라크인들의 테러와 저항이 있기는 했지만 이라크인들의 대다수는 후세인에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억압적인 체제에서 통제 당하는 국민들의 전형적인 행위양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억압적인 체제와 식량난을 이탈하여 남한에 온 북한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특히 김일성을 평생 뇌리에서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한으로 탈북한 이후까지도 김일성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후세인의 이라크와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의 다른 모습이다. 탈북자들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우리 국민들을 당혹하게 하며 북한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게 하며,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하여 오해하게도 한다.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그 영향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그 체제가 싫어서 남한으로 탈출해 와서까지 그 체제를 혐오하면서도

## 2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숭배하고 있는가?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그 주민들의 인식구조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북한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탈북자들이 김일성을 존경해마지 않는 배경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탈북자들이 김일성을 숭배하는 현상에 대하여 남한사람들은 북한체제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회주의 체제는 무너지는데 반하여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북한만의 장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둘째,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과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정치교육이 야기한 후유증도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태도에는 두가지 상반된 의식이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신적인 경지의 흠모의 정을 표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사자가 발생하는 북한체제에 대하여 배신감, 적대감,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신적인 경지로 숭배하지만 일반간부들에 대해서는 깊은 적대감을 갖기도 한다. 일반 간부들에 대해서는 깊은 적대감을 갖고 북한의 식량난에 대하여 간부들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북한에서 간부와 일반주민 간의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현상들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북한 사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는 성공했지만, 그 이상화가 북한체제의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다. 북한 경제난의 한 원인으로서 낮은 노동생산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이상화에 치중한 정치사회화 정책의 한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이상화는 성공했지만 경제적 노력동원은 실패한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담당할 간부와 주민들의 인성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숭배의 후유증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심리적 문제로 나타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을 정치의 도구로 정치사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정치교육과 사회통제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억압한다는 점이다. 한스-요하임 마즈가 분석한 바와 같이 통일 이전 동독주민들의 정신건강은 전체주의 체제에 의하여 심하게 장애를 받았다고 한다. 동독에서의 이러한 사례가 북한에서 그대로 반복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북한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으로서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전략과 그것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치사회화 정책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나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연구는 미흡하다. 개인숭배와 정치사회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통일 이후 남북한 체제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인숭배로 기려진 북한 지도자에 대한 진면목이 제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 전략의 유형을 판별해 내기 위한 텍스트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과의 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sup>2</sup>

1 한스-요하임 마즈 저, 송동준 역, 「사이코의 삼: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서울: 민음사, 1994).

2 이 책에서 인용된 탈북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 II. 사회화와 정치사회화의 관계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의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개념으로 사회화와 정치사회화의 개념을 사용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는 북한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믿고 신뢰하도록 정치사회화될 때 가능한 사회정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화와 정치사회화는 지향하는 가치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개인숭배가 정치사회화의 핵심목표이기 때문에 사회화와 정치사회화의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사회의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 1. 사회화 및 정치사회화의 개념

사회화라는 개념은 사회학에서 개발된 개념으로서,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몸에 익혀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걸맞는 역할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화는 생물학적 인간으로 태어난 개체를 사회적 인간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이며, 인간의 성장과정은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회화되지 못한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발전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회화란 인간을 사회의 기준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사회화가 잘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기준에 잘 순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화는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억압하는 측면이 많다.

그런데 에릭 에릭슨은 정상적인 사회화란 건전한 인성(healthy personality)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건전한 인성이란 자기주도성을 세우기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성숙한 인간 또는 성공적인 사회인이란 바로 자기주도성을 확보한 사람이다. 에릭슨은 8단계의 건강한 인성과 위기의 인성을 이념형으로 제시하면서<sup>3)</sup> 건강한 인성의 본질을 자기주도성의 확립으로 보았다. 자기주도성이 확립될수록, 유아 때부터 사회와 타인과 자신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능동적 자율성을 가지며, 자기일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며, 소년기 이후에는 자기 일에 열등감을 가져서 정체되기보다는 근면하게 자기 일에 매진하는 성격을 보이며, 12세 이후의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하여 확실한 자아정체감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서 20세 이후의 청년기에는 친밀한 성격을 가지고 사회성이 발달하며, 25세 이후 65세까지의 청장년기에는 이전 시기의 건강한 성격에 근거하여 직장생활에서 꾸준히 발전하게 되며, 65세 이후의 은퇴시기는 보람있는 인생이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자아와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기에 이른다.

에릭슨의 사회화의 개념은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사회화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유용한 개념이다. 또한 다윈주의 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자기주도성이 잘 부각되고 중시되었다는 측면에서 보편 타당성이 높은 이론이다. 개인의 동기유발과 사회적 통제 사이에서 건강한 인성을

---

3 Erikson이 분류한 생애의 단계별 성격유형의 변이는 다음과 같다. 출생: 1세, 신뢰 대 불신: 1-3세, 자율 대 수치와 회의: 4-5세, 솔선 대 죄책: 6-11세, 근면 대 열등: 12-20세, 자아정체 대 역할혼동: 20-24세, 친밀 대 고립: 25-65세, 발전 대 정체: 65세 이후, 자아통합 대 절망: Erik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0) 참조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에릭슨의 주장의 핵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사회적 통제와 개인의 자기주도성의 획득을 어느 부분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가 이다.

그런데 사회화의 일반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에릭슨의 자기주도의 확립이라는 사회화의 개념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사회화의 개념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에릭슨의 건강한 인성은 사회의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기주도성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잘 적응한 것은 개성을 억제하고 사회적 규범을 잘 수용한 것이 되는 반면, 건강한 인성이란 자기주도성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모순은 다원주의 사회일수록 약화되고, 전체주의 사회일수록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원주의 사회일수록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자체가 가치로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개성과 다양성은 억압되고 전체는 하나로, 하나는 전체로 수렴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정치사회화의 개념

정치사회화란 정치와 직접 연관된 사회화 과정으로서 개인이 그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 규범을 습득하여 자기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화의 개념을 정치학에 도입하여 정치사회화란 개념을 만든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다. 그는 정치체제의 안정적 조건으로서 그 구성원의 체계에 대한 지지도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정치체제를 지탱하는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구성원이 몸에 익혀 나가는 과정을 해명하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이 과정을 조작할 수단 있다면 정치체제의 안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전제 하에서 미국 정치체제론자들은 어린이들이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문화를 학습해 나가는가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사회화가 개인이 사회전체의 가치와 규범과 제도를 학습하여 건전한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면, 정치사회화는 정치체제를 지지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사회화의 핵심의 쟁점 하나는 바로 개인의 바람직한 인성의 유형으로서의 개인의 자기주도성과 정치체제가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개인의 자기주도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개인의 사회화와 정치사회화가 가능한 한 근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규범이 강력할수록 규범이 단일한 기준을 요구할수록 더욱 개인의 사회화와 정치사회화의 간극을 더 벌여질 수 있다.

## 2. 북한의 사회화와 정치사회화의 목표의 모순

북한에서 정치사회화의 목표의 핵심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이다. 개인이 사회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와 윤리, 지식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이 위대하다는 사실과 그들을 숭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 개인의 사회화와 정치사회화의 목표 간에 큰 괴리가 있다.

북한의 지배이념인 주체사상의 이론체계 내에서도 모순이 있다. 북한이 이론적으로는 개인의 자기주도성을 중시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에 명시되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간의 창조성, 자주성, 의식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체사상이 특정 개인의 개인숭배의 이론으로 활용되

고 있다. 즉, 주체사상이 수령론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에 의하여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도를 제대로 받을 때에만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이 인식하는 주체사상과 지도부가 의도하는 주체사상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다. 그만큼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개인숭배를 위한 정치사회화이다. 사회화의 목표와 정치사회화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 가. 사회화의 목표

북한은 교육의 목적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며 나아가서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교육 테제」에서 인간에 대한 능동적 주도적 능력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될수 있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키운다.<sup>4</sup>

---

4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 1977년 9월 5일, 「김일성 저작집 3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 373-374.

북한은 또한 교육의 본질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교수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본성으로부터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교수방법을 요구한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 발전시킨다. 인식의 주체는 사람들 자신이다. 사람은 자체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서만 사물현상의 본질을 인식할수 있다.<sup>5</sup>

북한은 또한 자립성과 창발성 교육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토론과 논쟁을 강조한다. 토론과 논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개인의 능동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사고를 적극 계발시키기 위하여서는 토론과 논쟁을 널리 하며 특히 문답식방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답식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서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증명되었다. 문답식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담보로 된다.<sup>6</sup>

또한 북한은 능동적 사고를 계발시키기 위하여 직관교육과 실물교육을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

5 위의 글, p. 374

6 위의 글, p. 391.

10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직관교육, 실물교육은 학생들에게 사물현상과 과학적 원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고 그들의 능동적 사고를 계발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학교들에서는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수내용을 직관화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현대적인 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sup>7</sup>

자력갱생의 개념도 능동성, 자기주도성의 개념에 유사한 개념으로서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자력갱생의 구호는 고등교육성과 대학들에서 먼저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을 나온 기술자, 전문가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공장, 기업소를 관리운영해나갈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공장, 기업소에 나가보면 자력갱생의 정신이 적은 일꾼들이 적지 않습니다.<sup>8</sup>

북한은 인간의 의식을 깨우쳐서 자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교육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그러한 인식의 결과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해외의 정보 접촉은 차단하고 있지만 국내 교육은 적극 장려하여 “지난날의 무지와 몽매”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개인의 의식수준을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

---

7 위의 글, p. 391.

8 김일성,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4차전문회의에서 한 연설 1962년 10월 16일, 「김일성 저작집 1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24.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모든 새세대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마음껏 공부하고있으며 100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나 국가, 경제, 문화기관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다.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모두다 중학교졸업 정도 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다. 지난날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던 이 땅우에 사회주의적 문명의 새시대가 펼쳐졌다.<sup>9</sup>

비타협적 투쟁과 신념을 강조하는 내용도 중시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하는 대상이 '계급적 원수'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독재체제에서 주민들에게 비타협적인 투쟁의 신념을 가지도록 권고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이 주민들의 의식형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로동계급의 이익을 고수하고 계급적 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난관앞에서 동요하게 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수 없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에게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sup>10</sup>

- 
- 9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발표 1977년 9월 5일, p. 373.
- 10 김일성,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에서 한 결론 1973년 2월 28일, 「김일성 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217.

앞에서 바람직한 사회화의 덕목으로서 일반적으로 자기주도성이 중시된다고 제시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사회화의 덕목으로서 대담, 용감, 투지가 강조되고 있다.

축구, 룡구, 배구, 정구, 탁구 같은 운동은 사람의 동작을 빠르게 하고 투지를 강하게 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청년들은 대담하고 용감하여야 하며 동작이 빨라야 합니다. 시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이 축구, 룡구, 배구, 정구, 탁구 같은 운동을 널리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케트도 잘 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철이 좀 들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스케트를 다 만들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스케트를 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대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스키를 타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스키타는 운동은 사람들을 용감하고 민활하게 만듭니다.<sup>11</sup>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김일성의 연설에서 사회화의 목표로 제시한 인성의 덕목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성의 덕목이 실제 사회화와 정치사회화의 과정에서는 거의 실현이 안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화의 덕목보다는 정치사회화의 덕목이 더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

11 위의 글, p. 223.

## 나. 정치사회화의 목표

정치사회화의 실제목표는 최고지도자를 개인숭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일성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인간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화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덕목을 중시하였다.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시민교육보다는 정치교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 (1) 개인숭배

북한의 정치사회화 정책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정치사회화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앞에서 본 대로 개인의 사회화의 목표로서 제시된 자기주도성, 창의성 등의 덕목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물질적 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sup>12</sup>

---

12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 1977년 9월 5일, p. 372.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무엇인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말로 북한당국이 의미하는 것은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을 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주체사상총서 9권의 영도체계<sup>13</sup>와 주체사상총서 6권 「인간개조리론」에서도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사상전에서는 수령님의 교시, 당의 의도대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것이 첫 공정으로 되어야 합니다.<sup>14</sup>

북한의 정치사회화의 목표는 체제의 명분상으로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숭배를 위하여 김일성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개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영도체계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풀어나가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의 모든 조직기구들과 거기에 망라되어있는 모든 성원들이 수령이 유일적 영도 밑에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수령이 의도와 명령,

---

13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지평, 1989), p. 79.

14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지평, 1989), p. 234.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게 하는 영도체계이다.<sup>15</sup>

수령의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조성, 의식성, 자주성, 대담, 용감, 투지와 같은 덕목은 설 자리가 없다.

## (2) 전체주의·집단주의 함양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위해서 북한은 개인의 창의성이나 주도성을 강조하는 사회화의 목표와는 대조적으로 개인들로 하여금 전체주의와 집단주의적인 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sup>16</sup>

집단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을 희생하여 집단위주로 소유하고 행동해야 하는

15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p. 79.

16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발표 1977년 9월 5일, p. 385.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집단주의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의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소년단 생활때부터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집단의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집단의 힘을 믿고 집단에 의거하여 생활하며 집단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훈련하여야 합니다.<sup>17</sup>

집단주의가 자기 개인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정신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학생들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공부를 잘하여 최우등을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집단주의정신이 없는 표현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자기힘으로 공부를 잘하여 최우등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집단가운데는 뒤떨어진 학생들이 있을수 있는것만큼 집단적으로 달리붙어 그들을 도와주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간부들가운데 대중의 집체적힘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지 않고 행정식방법으로 사업하는 일군이 많은데 이것도 그들이 지난날 학교에서 집단주의교양을 잘 받지 못한것과 관련됩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을 교양하고 집단을 발동시키면 모든사업이 잘되겠는데 집단주의 우월성을 잘 모르다보니 그렇게

---

17 김일성,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전국교육일군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61년 4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78.

하지 않고있습니다.<sup>18</sup>

### (3) 당성·계급성 함양

북한의 정치사회화 교육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점은 교육에서 당성과 노동계급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은 언제나 계급적 성격을 띤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노동계급적인 교육이다. 당성, 노동계급성은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다.<sup>19</sup>

그런데 실제로 당성과 노동계급성이라는 추상적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숭배를 위하여 필요한 ‘유일사상체제’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다. 사회주의교육의 모든 공간들은 사람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복무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전과정은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

---

18 김일성,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4차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62년 10월 16일, p. 420.

19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발표 1977년 9월 5일, p. 377.

## 18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우는 사업은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교육분야에 비당적인 사상요소와 불건전한 경향이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그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sup>20</sup>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개인숭배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정치사회화의 최고목적이다. 개인에 대한 사회화의 덕목으로서 김일성이 제시하였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자립성, 창발성, 비타협적 투지, 대담성 등은 모두 언어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 정치사회화를 통한 개인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자.

---

20 위의 글, p. 378.

### Ⅲ. 개인숭배의 전개과정

개인숭배를 위한 정치사회화의 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개인숭배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권력의 공고화 과정 및 세습의 공고화 과정별로 시기를 나눌 수 있다.

#### 1. 소련의 개인숭배 제도 이식기(1945년-1950년)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된 것이 소련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듯이 북한의 개인숭배의 관행도 소련에 의하여 이식된 것이었다.

국제공산주의에서 개인숭배(cult of personality)란 용어는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가 스탈린체제를 개인숭배라고 비판하고 나섰을 때에 비로소 사용된 말이다. 개인숭배는 최고 권력자 자신과 그 심복들이 인위적 조작, 역사의 위조, 반대파의 숙청, 매스컴에 의한 선전을 통하여 최고 권력자를 신성불가침화하며 전지전능한 초인간적 존재로 만든다. 여기에 동원되는 수단은 연극·영화·음악회·무용·실험실·신문사·텔레비전·체육경기, 각급 학교·대학, 각 기업체 등이다. 그 중 정치목적은 달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스컴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개인숭배의 밑바닥에 깔린 또 하나의 방법은 불복종자, 이탈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그리하여 개인숭배라는 개념은 그의 신격화운동 뿐만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공포정치·범죄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sup>21</sup>

당시 스탈린을 어떻게 우상화했는지는 1943년 모스크바에 있는 ‘말

스·앵겔스·레닌 연구소'가 발행한 국정 《스탈린小傳》에서 잘 나타나 있다.

스탈린이야말로 당의 찬란한 지도자요 스승이며, 사회주의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다. 사회주의 적들에 대해서 용서가 없으며 주의(主義)에 대해서 신명을 다 바치며 혁명에 대한 투명한 통찰력과 명확한 목표를 겸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확고부동함과 강인성을 간직하고 총명하고 실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며 대중과 친근하게 접촉한다. 바로 이것들이 스탈린의 스타일의 특색이다. ... 스탈린의 전 경력은 심오한 이론적 분석력이 혁명투쟁에서의 폭넓고 다양한 실천적 경험과 결합한 실례이다. ... 스탈린은 오늘의 레닌이다. 스탈린의 이름은 강인성의 상징이며 소비에트를 인민의 영예의 상징이며, 소비에트 인민을 의기양양하게 새로운 위업에로의 부르심이다. ...스탈린의 이름은 소비에트 사회의 정치적 단결 이상의 것의 상징이다. ...<sup>22</sup>

스탈린은 소련에서 자신을 개인숭배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최고지도자를 개인숭배 하도록 전파하였다. 소련은 공산권 내에서 모스크바의 통제를 일사불란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권 내에 개인숭배의 사다리를 만들었다. 즉 공산권 내에서 개인숭배의 사다리의 정상에 앉은 스탈린은 낮은 계단에 앉은 위성국의 독재자들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들 위성국 독재자들은 스탈린의 무비의 권력과 신임에 의지하여 자국내 개인숭배 사다리의 정상을 차지하고 인민들을 통치했다. 제2

21 양호민, “북한의 개인숭배 제고”, 「북한학보 26」(서울: 북한연구소, 2001), p. 1.

22 위의 글, p. 1에서 재인용.

차세계대전 후는 세계의 모든 스탈린주의적 통치체제에서 불치의 풍토병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다.<sup>23</sup>

스탈린은 동유럽과 북한을 위성국화 하여 지배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이 지도자를 파견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 지도자들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소련식 개인숭배를 이식하고 조성했다. 김일성은 바로 그런 위성국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김일성이 스탈린에 의하여 지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숭배까지 행해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소련의 북한 언론 장악이다. 북한에 진주했던 소련군 25군의 정치사령관을 지냈던 레베데프는 소련 군정 당시 북한에 대한 언론정책을 소상히 증언하였다.<sup>24</sup> 그의 증언에 의하면 소련군 연해주 군관구에는 동방의 정세분석 등을 담당하는 7호정치국에서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장교를 양성했는데 그들이 후에 북한에 들어와서 언론을 담당했다고 한다. 소련군정은 입북하자마자 평양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평양매일신문」의 설비 일체와 사무실을 그대로 접수해 소련군 신문사를 조직하여 한글로 신문을 발행했다. 북한 언론은 소련군정이 정해 놓은 한계 내에서만 움직여야 했다고 한다. 그 한계는 바로 소련 군정이 내밀하게 정해 놓은 목표로서 ‘북한의 소비에트화’라는 중장기 목표라고 한다. 소련군정 소속 매체는 직접 통제하고 기타 매체는 검열이라는 방식으로 간접 통제하였다고 한다.

통제의 기준은 두가지였다고 한다. 첫째는 “조선을 해방한 위대한 불

23 소련의 개인숭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연구사, 1994), pp. 247-263 참조

24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권 (서울: 중앙일보, 1991), pp. 48-57.

은 군대”에 대한 선전이며 두 번째는 김일성을 정치지도자로 부각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김일성을 항일 민족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소군정의 긴급한 과제였으며, 소군정은 가능한 모든 매체들로 하여금 김일성이 소군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자이며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점을 인민들에게 암시하도록 했다고 한다. 국내파라든가 의용군, 무정 등은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방송국에서는 방송 시작과 종료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반드시 틀도록 했다고 한다.<sup>25</sup>

서대숙은 소련점령당국이 북한을 소비에트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김일성의 권력장악이 소련의 결정과 후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앙일보특별취재반이 취재한 당시 소련군 관련자의 증언과 일치한다. 스킨리피노와 이정식은 소련이 북한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김일성은 그 당시 어느 지도자보다 외국의 “괴뢰”(a puppet of a foreign power)라고 주장한다. 소련의 북한통치기구는 북한정권이 수립된 후에 점령당국으로부터 소련대사관으로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sup>26</sup>

## 2. 권력투쟁기 (1950년-1967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점에서 갑산과 숙청을 통하여 연립정권이 단독세력으로 부상하기까지 시기이다. 이 시기는 김일성 권력에 대한 최대의 도전의 시기이자, 이 도전을 물리치고 권력의 독점을 이룩한 시기이다.

25 위의 책, pp. 58-63.

26 Robert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317-318, 381-382.

대외적으로 김일성의 대부였던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시초프가 등장하여 개인숭배를 비판하면서 소련 위성국들의 지도자들을 교체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외부의 개인숭배의 비판이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958년에 8월 종파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활용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김일성은 1950년부터 다른 지도자와 구별되어 ‘수령’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는데 김일성 숭배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한국전쟁 중에 충성심을 동원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김일성이 40세가 되는 1952년이 분기점이었다. 김일성은 당과 국가기관에 의해서 스탈린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되었다.<sup>27</sup> 1952년 4월 10일 「로동신문」에 박정애는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 동지는 조선 근로계급의 역사적 과업과 사회의 역사적 발전법칙의 정확한 파악, 혁명의 환경과 조건의 예민한 분석, 혁명적 용감성, 새것에 대한 민감성,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 대중과의 불가분리의 연계, 원쑤에게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 멀리 내다보는 예견성, 이 모든 고귀한 품성과 특징을 소유했다.<sup>28</sup>

김일성의 개인숭배가 강화된 배경의 하나는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 내의 민족주의파, 국내파 등 주류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소수파의 김일성을 옹립하였기 때문에 소수파 김일성이 생존하기 위해서 권력투쟁 지향적인

27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p. 249.

28 이정식, 스칼라피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서울: 돌베개, 1986), p. 540; 박형중, 위의 책, p. 249에서 재인용.

특성으로 형성되었던 점에 있다. 해방 당시 정치세력의 지형을 볼 때 주류를 형성하였던 것은 조만식, 박헌영 등 국내파였다. 수적으로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대중성이 컸다. 그런데 북한의 전 인민들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고 있던 조만식을 비롯한 민주 민족 진영과 국내 공산주의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련이 개입하여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이식하고 개인숭배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풍량이 컸던 것이다. 조만식이 이끄는 민족주의파는 가장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일찍이 소련에 의하여 거세되었고 남은 권력집단 또는 파벌은 김일성의 빨치산파와 갑산파를 포함한 범빨치산파, 조선계 소련인들을 지칭하는 소련파, 중국에서 돌아온 혁명기들로 구성된 연안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 사람들을 망리한 국내파였다. 이중 가장 수가 많은 것이 국내파였고 가장 수가 적은 것이 빨치산파였다.<sup>29</sup> 이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에 오늘날과 같이 정권유지 제일주의의 정치풍토가 형성되었다. 다수파를 견제하면서 소수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오랫동안 국내파, 중국파, 소련파와 연립정권을 형성하였고 연립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권력투쟁 일변도의 정치를 했던 것이다.

가장 먼저 제거된 파벌은 남로당파였다. 6·25전쟁 중 전쟁 실패에 책임을 물어 김일성에 대한 공세가 제기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오히려 전쟁의 책임을 남로당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역공을 취했다. 남침을 감행하였을 때 남한에서 공산당의 남침을 환영하여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남로당을 비난하였다. 수

29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 건설」(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p. 5.

가 가장 많고 부담스러운 국내파를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것이다. 6·25전쟁의 주도자가 자기입에도 불구하고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파에 전쟁의 실패를 전가하고 미국 간첩이라는 죄를 씌워서 1952년 12월 15일에 체포하였고, 휴전 3일 후에 이들을 기소하여 처형하였다.<sup>30</sup> 최대 과별이었던 박헌영을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미제의 간첩으로 몰아서 제거한 것이다.

김일성에 대한 그 다음의 도전은 소련파와 연안파로부터 왔다. 한국전쟁 동안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은 것이 소련파와 연안파가 더욱 득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1956년 8월의 종파사건을 계기로 소련파와 연안파를 제거하였다. 1967년에 갑산파 제거를 마지막으로 경쟁파벌들을 제거하여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1967년 유일체제를 확립하기까지는 김일성의 권력은 경쟁파벌들과의 연립정권이었으며 이들파의 집단지도체제였다.

이 기간 동안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제시하여 자신의 권력의 이념으로 발전시켰다. 1955년에 주체를 세운다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정적들을 소련파와 중국파로 낙인을 찍고 주체가 없으며 사대주의에 빠졌다는 명분으로 비판하다가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모두 숙청하였다.

30 박헌영에 대한 처형은 1955년 12월에 있었다. 고병철, 위의 글, pp. 12-13.

### 3. 유일체제 확립기 (1967년-1972년)

갑산파를 숙청하여 유일체제로 권력을 독점한 이후 1972년의 김일성 헌법을 채택하는 시기까지이다. 김일성의 빨치산파로만 구성된 권력의 독점을 쟁취한 이후 독점권력을 이론적·제도적으로 공고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 소위 ‘혁명적 수령관’이 정립되었다. 1969년 4월 29일자 「로동신문」은 수령의 개념을 제시하였다.<sup>31</sup> 당시 제시된 수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통일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며 혁명과 건설의 항도적 역량인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 뇌수”로 정의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수령에 의하여 하나의 전일적 체계로 이루어지며 수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의 총체를 지도하는 유일한 최고 령도자”로 규정하였다.

이 수령의 개념이 제도화된 것이 1972년의 새 헌법이다. 이 헌법에서 북한은 권력구조를 바꾸어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제도화하였다. 구헌법이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집행기관인 내각을 중심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1972년 헌법은 권력의 중심을 주석으로 옮겼다. 즉,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고, 내각을 없앴으며, 대신에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과 주석의 지도를 받는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헌법 개정의 의미는 수령의 유일적 지도를 제도화한 것이었다.<sup>32</sup>

---

31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 운동 및 세계혁명 승리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입니다.” 「로동신문」, 1969. 4. 29.

갑산과 숙청사건을 김정일이 주도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갑산과 사건을 계기로 김정일은 권력투쟁의 전면에 부상할 수 있었다. 갑산과를 숙청한 직후부터 북한은 그 동안의 집단지도체제를 김일성의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김정일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가령, 김정일은 1967년 4기 15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회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리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sup>33</sup> 김정일이 김일성 유일사상체계확립과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유일체제를 확립하여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는 수령체를 채택하게 된 데는 김정일의 권력세습에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7년 이후의 북한의 정치는 김정일의 권력과 분리할 수 없으며,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도 김정일의 권력세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4. 김정일 후계체제 준비기 (1972년-1980년)

김정일이 막후에서 후계자 지위를 확보하여 표면에 공식 등장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이후에는 김일성 개인숭배는 김정일에 의하여 주도되었는데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64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당에 입문하여 정치를 시작하였으며, 1966년 2월부터는 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

32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83.

3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락전」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9), p. 99.

로서 영화사업을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1969년 3월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1970년 10월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부문 담당 부부장, 1972년 1월에 당선선전동부 부장에 올랐다. 드디어 1973년 9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7차전원회의가 비밀리에 개최되어 김정일은 조직과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비서 및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74년 2월에는 만 32세의 나이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sup>34</sup> 당의 수뇌부에 올랐다. 김정일이 정치위원이 된 것은 김일 등의 추대발언에서 나타난 비와 같이 후계자로서 공식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당중앙으로 지칭되면서 명실상부한 후계자의 위치를 장악하게 되었다. 후계자로 공식지위에 오른 것은 1974년이지만 김정일은 오래 전부터 후계자로서 역할을 해왔고 북한지도부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도 김일성에 대한 개인승배는 김정일이 주도하였다. 김정일은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수단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발전과 해석권을 활용하였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키면서 김일성에 대한 이상화를 심화하였고, 그 주창자로 자신을 부각시켰다. 「김정일선집」에는 1973년 8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전 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 것을 역설하였고,<sup>35</sup> 그해 9월 25일에는 「선전선동부 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

34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73.

35 김정일, “선전선동부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17일, 「김정일선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행한 연설에서<sup>36</sup> 김일성주의화 실현을 당 사상사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정일선집」(1992)보다 먼저 나온 「김정일저작집」(1987)에는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sup>37</sup> 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정일 연설문에서 주장한 대로 김일성주의는 김정일에 의해서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김일성주의의 천명은 본질적으로 주체사상이 맑스주의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엄청난 것이며, 김정일이 제기하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의 ‘격상’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제를 재생산 해내기 위한 사상적 수단으로 후계자 김정일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8</sup>

김정일은 또한 주체사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추진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구호가 처음 나온 것은 1974년 2월이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전국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 하였다고 한다.<sup>39</sup> 같은 해에 김일성의

36 김정일, “선전선동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9월 25일 「김정일선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37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 선전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2월 1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2

38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90-92 참조

3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 p. 474

연설에서도 이 구호가 나타나고 그 구호 자체가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sup>40</sup>

1970년대 개인숭배는 김일성의 사상을 주체사상으로 정립하고, 김일성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의 반열로 올림으로써 사회주의체제 지도자인 레닌과 스탈린의 수준으로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5. 후계자시대: 김일성·김정일 공동집권 시기(1980년-1994년)

김정일이 표면에 등장하여 공식적인 제2인자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에 관여한 이후부터 김일성 사망하기까지 시기이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의 제7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공식화하였다.

언론도 그동안 ‘영광스런 당중앙’이라는 익명의 호칭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로 바뀌어졌다. 이 시기에는 김정일에 의하여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지속되었으며,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도 병행하였다. 1982

---

40 김일성,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당조직일군 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4년 7월 31일, 「김일성저작집 2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76; 김동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혁명위업”, 「근로자」(1975년 10호), p. 12.

년 김일성의 60회 생일을 맞아 평양에 주체사상탑 건립을 계기로, 개선문, 인민문화대궁전, 청년학생문화궁전 등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건립하면서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가속화였다.

동시에 김정일에 대해서는 1982년부터 그를 찬양하는 전기들이 출간되었으며, 그의 성장과 관련있는 지역들이 혁명사적지로 조성되었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차 김일성을 대신하여 그가 ‘실무지도’라는 이름 아래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횡수가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 말에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김일성을 대신하게 되었다.<sup>41</sup>

## 6. 김정일 시대 (1994년 이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유훈통치라는 명분으로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하였다. 개인숭배의 방식도 김일성의 후광에 의존하여 자신을 개인숭배하던 이전시기의 유형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아버지의 개인숭배를 지속하면서 그 그늘에서 자신의 승계의 의미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 유훈통치를 지속하던 김정일은 1998년 9월에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장직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열었다. 헌법 개정에서 주목할 것은 1972년 헌법에서 내각을 정무원으로 개칭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정무원을 다시 내각으로 개칭하여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것은 경제문제를 내각의 책임으로 돌린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난의 책임도 함께 내각으로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1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8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이 지속되자 김정일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적인 구호들을 제시하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가령,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통치이념이 그 중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서 신봉되던 때를 돌이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새롭게 헌법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여 그 이듬해부터 신년공동사설, 노동신문 등에서 주체사상의 자리를 대체할 만큼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김정일은 또한 IT 산업의 발전을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채택하여 '신사고'라고 불려질 만큼의 정책적 결단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김정일의 리더십이 북한주민들에게 부각되는 계기가 된 것은 뜻밖에도 예기치 않았던 2002년 10월에 터진 제2차 북한핵문제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위기적 상황에서 김정일은 오히려 정치적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핵문제로 미국과 대결하는 동안 체제통합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침예한 핵위기가 조성되었다. ... 지난해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가, 위대한 전략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의 승리, 신념과 배짱의 승리이다. 비범한 통찰력과 정치적결단성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지략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온갖 난국을 헤치며 승리해 나가게 한 근본비결이었다. 강철의 의지와 무한대한 정력으로 온 한해동안 끊임없이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장정은 조국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절세의 위인만이 수놓을 수 있는 영웅서사시적 행로였다. 군대와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혁명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는 천만군민의 심장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온 나라에 전설같은 혼연일체의 화폭이 펼쳐지게 하였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본격 추진된 것은 김정일의 주도에 의한 것임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런데 김정일은 신적인 경지로 개인숭배된 김일성의 그늘에 가려 손해를 보고 있는 점도 있다. 현재 북한주민들 사이에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 것이 그 증거이다. 김정일이 앞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정당화해 나가고 지지도를 만회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 IV. 개인숭배의 이론적 정당화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양식이 개인숭배라는 것으로 특징지어지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수령제라는 것이 앞에서 지적되었다. 북한은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 이것을 이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스탈린 사망 이후 개인숭배 비판의 파도가 사회주의권 전체를 요동시켰을 때 김일성은 사회주의권과 장벽을 치고 주체를 확립할 것을 선언하면서 개인숭배를 지속하였다. 그래서 김일성은 개인숭배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의 논리가 필요하였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과 주체사상을 통하여 개인숭배의 논리를 만들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개념지어졌던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은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독재자에게는 무소불위의 이념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북한은 이 개념을 북한 조선노동당의 독재, 나아가서 김일성 개인의 독재로 변용하였다.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은 1967년 이후 추진된 유일사상체계의 이론으로 잘 활용되었다. 다시말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을 수령의 독재 개념으로 개칭한 셈이다.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주체사상 이론서에서 조차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은 온존된 채 북한의 수령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래의 「주체사상 총서」 인용문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개념을 프롤레타리아

아 독재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는 수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로 이루어진다.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는 혁명과 건설 전반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지도체계이며 영도체계이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영도체계인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이다.<sup>42</sup>

북한의 노동당은 노동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당이므로 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는 이론으로 비약되었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집단주의적 지도체제의 개념인데 이는 북한에서는 당이 대체한 것이다.

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지도적 지위에 있는 최고의 조직으로 되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의 다른 모든 조직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혁명의 참모부로 된다.<sup>43</sup>

그리고 수령은 당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집단지도체제는 수령 개인의 독재로 변형되었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적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42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주체사상총서 9), p. 110.

43 위의 책, p. 112.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영도체계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풀어나가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조직기구들과 거기에 망라되어 있는 모든 성원들이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수령의 의도와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 나가게 하는 영도체계이다.<sup>44</sup>

요약컨대 맑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은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개념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 레닌의 전위당 이론

북한의 개인숭배를 정당화한 것은 레닌의 프롤레타리아독재 개념뿐 아니라 레닌의 전위당 이론이 더욱 적극적으로 가세하였다. 당의 전위적 역할에 대한 레닌의 입장은 러시아혁명 당시의 ‘경제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립되었다. 경제주의자들은 사적 유물론을 해석함에 있어서 노동자의 혁명적 의식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성숙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레닌은 노동자를 혁명적으로 의식화시키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당의 전위적 역할이라고 보았다.<sup>45</sup>

레닌은 자발적인 노동계급운동은 자연발생적인 상태로 방치되면 결국

---

44 위의 책, p. 79.

45 Ralf Miliband,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pp. 161-62;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386, 396.

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게 되며 노동조합은 부르조아지가 노동자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노예화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sup>46</sup>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더 좋은 조건에 팔기 위하여 투쟁을 하기는 하겠지만 노동자들의 운동은 어디까지나 부르조아 노동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혁명의식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47</sup>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스스로는 사회주의적 의식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혁명을 향한 의지는 단순히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조건이 혁명의 가능성은 만들겠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조직화된 당이며 당만이 혁명적 의식의 원천이며 주도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48</sup>

레닌은 당이 전위대, 조직자, 지도자, 이론가여야 하며 그러한 역할 없이는 노동자들이 부르조아사회의 지평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오직 당만이 사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49</sup> 당의 헤게모니에 대한 레닌의 이러한 사상은 자연히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당은 대중보다는 대중의 이익, 요구, 욕구에 대하여 더 잘 알며 인민대중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당만이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잘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다.<sup>50</sup> 이러한

---

46 V. I. Lenin, *State and Revolution, Lenin's collected Works*, vol. 5, p. 384;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p. 387.

47 Leszek Kolakowski, *Ibid.*, p. 389.

48 *Ibid.*, pp. 397-98.

49 *Ibid.*, pp. 387, 391.

50 *Ibid.*, p. 392.

점에서 레닌은 당 주도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유포피아 사회주의 및 자생적인 노동자운동과 구별하였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언제까지나 타락한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의 전략은 소수 정예주의이며 엘리트주의였다.<sup>51</sup> 당이 계급을 대신하고 엘리트주의적 당-국가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상징되었던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도적 지위를 대신했다. 레닌의 사상에는 확실히 인민대중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것은 결국 노동계급과 사회전체에 대한 당의 독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기초가 되었다.

레닌의 전위당 이론이 김일성에게 직접 수용되었다는 증거를 김일성의 한 연설문에서 엿볼 수 있다.

당은 레닌적 당 건설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우선 노동계급속에 확고히 뿌리박고 노동자 성분으로 자기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그들속에서 계통적으로 당간부들을 육성함으로써 당의 기본핵심을 꾸려놓았다. 이에 기초하여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자들속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적극 당에 받아들이고 당적 훈련과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은 근로대중의 선봉대로서 조선에서 가장 강대한 정당으로 발전하였다.<sup>52</sup>

51 Amos Perlmutter, *Modern Authoritarianism: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김문조·임현진 역, 「현대국가와 권위주의」(서울: 정음사, 1986), p. 102.

52 김일성,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4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론설 1957년 10월 22일, 「김일성저작집 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59.

### 3. ‘주체의 영도방법’

프롤레타리아독재이론과 레닌의 전위당이론,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종합하여 정립한 개인숭배 이론이 ‘주체의 영도방법’ 또는 ‘혁명적 수령관’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총서」 제9권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숭배의 리더십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책이다. 이 책의 맨 첫 문단에 “주체의 영도방법은 우리 시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여 김일성동지가 창시하시고 김정일동지가 심화 발전시킨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공산주의적 영도방법이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채택하고 있는 개인숭배에 의한 통치방식을 주체의 영도방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자신들의 그러한 방식의 통치가 정당한 근거를 당의 영도와 주체사상의 논리로 설명하였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지만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사회역사적 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영도하여 그들을 사회역사적 운동의 참다운 주체로 되게 이끌어주는 시업은 노동계급의 당과 수령에 의하여 실현된다.<sup>53</sup>

그렇다면 당과 수령이 지도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노동계급의 당은 노동계급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선봉대, 전위대

53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주체사상총서 9), p. 34.

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은 계급의 다른 조직들보다 의식화 수준에서나 조직화 정도에 있어서 최고형태의 조직으로 되며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이끌어가는 향도적 역량으로, 혁명의 참모부로 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수령은 당의 최고영도자이며 일반적인 개인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개인은 어디까지나 대중의 한 성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의사와 요구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수령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 전체의 의사와 요구의 최고 체현자이며 그들의 이익의 최고 대표자이라는 것이다.

수령은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헌없이 넓은 포용력,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을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최고영도자이며 혁명투쟁 행정에서 쌓은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참다운 인민의 영도자이다. 따라서 수령과 인민대중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써도 끊을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가 맺어지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가장 생활력있고 공고한 통일단결이 이루어진다.<sup>54</sup>

여기서 볼 때 수령의 정당성은 제도적인 정당성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환원시켜 버렸다. 결국 정당성의 근거는 법적인 근거라 아니라 김일성 개인의 카리스마인 것이다. 김일성이 그러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그를 수령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54 위의 책, p. 35.

## V. 개인숭배의 전략

### 1. 개인숭배를 위한 정치적 담론구조

북한의 체제를 이탈하여 남한에 귀순한 탈북자까지도 김일성 우상화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를 신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 인식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한 목적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개인숭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정치적 담론구조를 분석한다. 여기서 발견된 북한의 담론구조는 탈북자들과의 심층 면접과, 김일성과 김정일 연설문에서 발견한 것들이다.

#### 가 . 항일무장투쟁의 지도자상 형상화

북한에서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위한 이미지 형성에서 가장 중시하는 내용의 하나는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는 근거는 김일성이 “마지막까지 무장투쟁을 하여 나라를 일제에서 해방한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생각한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일성일 항일무장투쟁을 하여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주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제와 맞서 싸웠으며 그 싸움에서 성공하여 일본을 몰아내고 북한을 해방시켰다는 내용이다.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한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의 상당부분이 과장되었고 또 왜곡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기령, 민주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1941년에 일군의 반격에 밀려서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지역으로 피신하여 소련극동군에 배속되어 있다가 1945년에 소련에 의하여 북한의 지도자로 선발되어 입국하였다는 사실은 북한의 역사에서는 숨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왜곡한 상태로 과장하여 김일성의 개인숭배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활용하였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제시한 대로 북한은 다양한 제도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의 업적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수령의 정당성의 근거를 만들었다.

김일성 본인도 자신의 정당성을 항일무장투쟁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항일무장투쟁 경험이다.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면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전쟁인 동시에 숭고한 공산주의적 리념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새 국면을 열어놓았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대대적으로 키워낼수 있게 되었으며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고 당창건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sup>55</sup>

55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장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1986년 5월 31일, 「김일성 저작집 4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6.

김일성이 연설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거론하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 1949년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개인숭배를 하기 이전의 사례를 하나만 더 들어보기로 한다. 인민군대에 관하여 행한 연설에서 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날 일제의 착취와 탄압이 극도에 이르고 조국의 하늘에 비운이 뒤덮었던 암담한 시기에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조국을 광복하려는 일념으로 감옥도 단두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강도 일제와 굴함없이 싸워 민족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으며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인민의 자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고 있습니다.<sup>56</sup>

김일성의 연설에서 어떤 주제든 어떤 사안이든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모든 정책과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항일무장투쟁 경험에서 찾았다. 북한에서 행한 김일성 개인숭배가 항일무장투쟁을 소재로 하여 추진된 것은 김일성의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56 김일성, “인민군대는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한다”, 조선인민군 제655군부대군관회의에서 한 연설 1949년 7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06.

## 나 . 무오류의 지도자상 형상화

### (1) 개인적 카리스마 구축

김일성이 과거의 항일저항 활동, 전후 경제복구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일성이 스스로를 개인숭배한 것은 그러한 객관적 근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왜곡과 과장을 하였다.

김일성을 개인숭배하는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김일성이 무오류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그 능력에 근거한 절대적인 업적을 가졌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령은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헌없이 넓은 포용력,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고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최고영도자이며 혁명투쟁 행정에서 쌓은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참다운 인민의 영도자이다.<sup>57</sup>

수령이란 하나의 제도로서 정의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 개인의 능력이자 업적이라고 평가되어야 하는 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령

---

57 사회과학출판사, 「영도체계」(주체사상총서 9), p. 35.

이란 제도가 아니라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형성하기 위한 개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수령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 임무, 계급적 세력이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며 장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경험과 과학적인 령도 예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와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 속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 수 없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정치적 령도자이다.<sup>58</sup>

이렇게 정의된 수령에 대해서는 무조건성, 절대성의 원칙으로 복종하고 숭배하도록 계율화하였다. 유일사상확립 10대원칙이 그것이다. 1974년에 발표한 ‘유일체제확립 10대원칙’은 북한판 10계명으로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의 정치적 계율이 되고 있다. 10대원칙의 내용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해야 하며,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하며, 김일성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하며, 김일성 교시의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10번째 계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

58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324.

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서 10계명은 김정일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김일성

정책의 무오류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김일성 연설의 많은 부분은 자신의 정책결정이 옳은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오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인 발전노선 논쟁에 대해서 김일성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되새긴다.

우리 당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놓았을 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그것을 반대해 나섰습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잣대미 우에서 어떻게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는가,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치면 되는가,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하면서 당의 로선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뒤에서 계속 쓸라닥질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질수 있게 된것은 바로 조그마한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관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대한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지난날에도 정당하였고 오늘도 정당하며 앞으로 정당할것입니다.<sup>59</sup>

59 김일성,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8기 제27차회의에서 한 연설 1989년 7월 9일, 「김일성 저작집 4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73-74.

김일성 자신이 선택한 발전노선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의 연설에서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진 내용이 무수히 많다. 하나만 더 들어보자.

지난 시기 일부 학자들은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원유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수력발전소나 다른 발전소를 건설하는것보다 빠르다고 하면서 원유발전소를 건설하자고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유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물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것보다 좀 빠를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원유를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원유발전소를 건설하였다가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제대로 들여오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우리 나라에 많은 수력과 석탄을 리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해주고 원유발전소를 건설하지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후 몇해 지나서 세계적으로 연료위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자체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여 동력공업을 발전시킨 우리 당의 방침이 매우 정당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체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지 않고 원유발전소를 건설하였다면 우리 나라도 세계연료위기에 말려들어갔을 것이며 경제발전에서 큰 지장을 받았을것입니다.<sup>60</sup>

## (2) 유일성

김일성을 무오류의 지도자로 우상화하는 논리 중의 하나는 김일성 리

60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0월 1일, 「김일성 저작집 3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45.

더십의 유일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김일성 외에 다른 대안적 지도자가 없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김일성의 가계를 몇 대조상에서부터 김일성 가계만이 유일하게 민족의 지주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했다는 것으로 역사를 허위로 개작하였다. 가령, 김일성 증조할아버지 김응우가 격침시켰다는 셔만호 침몰사건에서부터, 근대 격변기, 3·1운동, 항일빨치산 활동, 건국, 6·25전쟁 승리, 전후복구의 승리, 사회주의 공업화, 사회주의 대건설, 후계구도에 이르기까지의 혁명, 계속혁명까지 모두 김일성의 가계, 김일성, 김정일의 단독의 업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반주민도 모두 배제되고, 중국이나 소련의 역할도 모두 배제된 채 오로지 김일성가계와 김일성만 주도자, 주체가 되었다. 전후복구 건설과정에 중국, 소련, 동구의 원조는 일체 언급이 없으며 모든 것이 김일성의 영도로 이루어졌다. 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 70년대 사회주의 대건설을 김일성이 진두지휘하여 북한이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가 되었다고 선전한다. 3·1운동도 당시 국민들의 참여는 언급이 없고, 33인의 선언도 언급이 없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절대자가 되기 위하여 역사의 전 과정에서 모든 역사적 가치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김일성 가계, 본인,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를 창조하는데 공헌한 주도자요 주체였다.

김일성과 김정일 외에는 대안적인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가계만이 유일한 지도자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 (3)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매우 자상한 지도자상

김일성의 개인숭배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일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현지도도를 하는 지도자라는 이미

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스스로 세운 이신작칙(以身作則)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방방곡곡을 누비며 현지지도를 하고 주민들의 생활형편을 살피는 지도자로, 그리고 모든 문제에 매우 자세하게 지도를 하고 관심을 갖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은 인민을 위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핵심논리의 하나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것도 이러한 논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배스를 기다리느라고 줄지어 서있는것을 보고도 본척만척하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으며 상점에 부식물이 있건없건 상관하지 않고 상품의 질이 낮아도 그만, 물건이 모자라도 그만,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 아주 어렵게 사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과 같이 잘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인민들을 잘살게 하지는것이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는것이며 모든 사람이 잘살수 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입니다.<sup>61</sup>

북한은 또한 김일성이 경제를 포함한 인민생활의 세세한 부분을 지적하고 지시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한다.

---

61 김일성,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12월 19일, 「김일성 저작집 1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98.

바다가 양식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양식을 잘하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바다가양식을 잘하면 인민들에게 사철 바다나물과 조개 같은것을 떨구지 않고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군들이 바다가 양식을 잘하지 않고있습니다. 바다가 양식을 잘하지 못한것은 띄우개와 틀줄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도를 찾지 못한것과도 관련되어있습니다.<sup>62</sup>

통계숫자를 나열하면서 매우 해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모든 문제에서 해박한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최상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무오류의 지도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마양식도 잘하여야 합니다. 섭조개와 다시마 양식을 실지 할수 있는 도들과 인민군대에만 과업을 주어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섭조개와 다시마 양식면적을 각각 함경북도에서 5,000정보, 함경남도에서 5,000정보, 강원도에서 2,000정보, 황해남도에서 3,000정보, 황해북도에서 500정보씩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별로 과제를 이렇게 정하여주면 섭조개와 다시마 양식면적을 각각 1만 5,000여정보씩 조성할수 있을것입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섭조개양식면적 4,000정보, 다시마양식면적 1,000정보 하여 모두 5,000정보의 바다가양식면적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바다가양식면적을 5,000정보가 아니라 6,000정보 조성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여도 나쁘지 않습니

62 김일성,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8기 제27차회의에서 한 연설 1989년 7월 9일, pp. 93-94.

다.<sup>63</sup>

나무심기 운동을 지시하고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자세하게 나열하여 지도자의 자상함을 부각하는 연설도 있다.

사료청은 청소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사료청일군들이 사업을 짜고들어 청소년들속에서 나무심는 운동을 널리 벌리면 많은 나무를 심을수 있습니다. — 이제부터라도 모든학교에서 빨리 자라는 나무를 한해에 10정 보씩 심으면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10만정보에서 나무를 찍어쓸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이와 화학섬유 생산에 필요한 나무를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책상, 걸상, 찬장, 옷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가구들과 문화용품들을 많이 만들수 있습니다.<sup>64</sup>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며 경공업과 화학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넉넉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기름나무림을 많이 조성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름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여 해마다 술한 외회를 들여 다른 나라에서 기름을 사오고 있으며 먹는기름을 비누나 칠감 같은것을 만드는데 쓰고있습니다. 만일 기름나무림을 조성하여 기름을 많이 생산한다면 그것으로 비누나 칠감 같은것을 만들고 먹는기름은 근로자들에게 공급할수 있을것입니다.<sup>65</sup>

---

63 위의 글, p. 95.

64 김일성,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에서 한 결론 1973년 2월 28일, 「김일성 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228.

65 위의 글, p. 230.

김일성의 연설은 주민들에게 의복, 모자, 머플러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1~2년동안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여성들에게 좋은 세타와 외투를 해입히며 남자들에게도 두툼한 솜저고리를 해입히고 늙은이들에게도 옷을 잘해입혀야 하겠습니다. 옷뿐만아니라 겨울신발과 겨울모자, 겨울머리수건도 많이 생산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투쟁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훨씬 높이면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똑똑히 깨달을 것이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것입니다.<sup>66</sup>

이처럼 김일성이 북한 인민생활에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는 범위는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한다. 김일성의 연설은 북한 정책의 백과사전이다.

#### (4) 시혜를 베푸는 지도자상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취해지기 전의 북한은 배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 배급제가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배급제에 대하여 북한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노동의 대가로 임금성으로 국가에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령이 주민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하였다.

66 위의 글, p. 236-237.

배급제는 개인의 생산성만큼 월급을 주어서 그 돈으로 자유롭게 교육, 치료, 생필품 구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의료서비스, 생필품을 모두 현물로 지급하는 제도인 셈이다. 이러한 제도를 북한지도부는 정치 선전에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가령, 노인들의 환갑에 생일상을 내려주고 언론에 홍보하는 행위를 자주 한다. 또한 주민의 결혼식에 TV나 가전제품을 선물로 주면서 수령이 은혜를 베푼 것으로 선전한다. 개인의 생산성에 상응하는 월급을 주었다면 개인은 자기노력으로 번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일이다. 이런 점에서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원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은 완전고용과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체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된데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다. 결국 사회보장제도든 배급제든 모두 최고지도자의 선물로 인식하게 하여 우상숭배의 도구로 사용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사회주의 제도 및 주체사상의 우월성 선동

김일성을 개인숭배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언어적 논리의 하나는 김일성이 무오류의 위대한 지도자일뿐 아니라 김일성이 만든 사회주의라는 제도는 자본주의에 비하여 우월하고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최후 승리는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가장 훌륭한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항상 굳은 결의를 가지도록 촉구한다.

## (1) 사회주의의 우월성 선동

북한체제를 정당화하는 체제이념은 사회주의이다. 김일성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김일성이 가장 우월한 제도인 사회주의를 투쟁을 통하여 쟁취해 냈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의 일제와 지주를 악덕체도로 부각하고 현재의 자본주의와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지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쟁취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온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sup>67</sup>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이 지배하는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우월한 제도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평등, 안정된 일자리, 참여, 분배 등의 가치를 복한의 것으로 니열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하고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생활은 인민

67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90년 5월 24일, 「김일성 저작집 4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96.

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집단주의적인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적 리념에 맞는 정치생활과 문화생활, 물질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분야입니다. 사회주의적 물질생활은 사람들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며 창조적 활동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건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같이 잘사는 평등한 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들이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권리와 그에 필요한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창조적 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로동의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을뿐아니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sup>68</sup>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북한체제의 장점을 지적할 때 무료교육과 무상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자주 지적을 한다. 북한의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대단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북한체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학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고르롭게 누리고있습니

---

68 위의 글, p. 298-299.

다. 우리 사회는 인민들의 정치적권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며 유린하는 그 어떤 사회악도 없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회입니다.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근심걱정을 모를 뿐 아니라 누구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하고있으며 단 한사람의 실업자도 단 한사람의 류량결식자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누리고있으며 가장 선진적인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생동안 마음껏 배우며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 해나가는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며 본질적우월성입니다.<sup>69</sup>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김일성이 사회주의가 역사의 대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각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한 이후 40년이 지나갔다. 길지 않은 이 기간에 인류력사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살고있다.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주의가 강대한 세계적인 체제로 전변된 것이다. 쏘련인민들이 10월혁명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세계에 사회주의국가가 하나밖에 없었다.

69 김일성, “신년사”, 1993년 1월 1일, 「김일성 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9.

그러나 지금은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인민대중을 파악한 10월의 사상은 인류사회를 개조하는 위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었으며 사회주의는 이미 쏘련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났다. 오늘 쏘련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대해졌을 뿐 아니라 전체 인류의 3분의 1이 넘는 거의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10월혁명이 개척한 길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사회주의진영에 굳게 결속되었다. 하나로 단합된 사회주의진영은 매우 강대하다.<sup>70</sup>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이 바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논리와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본주의체계에 대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의 결정적인 우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쏘련에서는 전후 두차례에 걸치는 5개년계획이 기한전에 성과적으로 완수되었으며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이 더욱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최신과학과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이 늘어나고있으며 빨리 발전하는 과학, 문화의 모든 성과들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쏘련은 인류의 최고숙망인 공산주의사회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총결기간에 아세아에서는 중국인민혁명이 승리하였습니다. 6억의 중국인민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반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금은 사회주의에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의 중요한 성원으로 되었습니다.<sup>71</sup>

70 김일성, “사회주의국가들의 친선과 단결” 쏘련잡지 《메쥬두나로드나야 쥐즌》 1957년 11월호에 발표한 론설, 「김일성 저작집 11」(1957.1 - 1957.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64.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50년대 중반에서 김일성이 자주 사용한 논리의 하나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련과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주체사상이 정립되기 이전의 논리이다. 주체사상이 정립된 이후에는 사대주의라고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는 논리이다.

소련은 일련의 중요한 과학분야에서 미국과 그밖의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을 훨씬 앞섰습니다. 소련은 대륙간탄도로켓을 완성하고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세계과학발전력사에 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쏘베트과학이 평화애호인민들과 인류 앞에 이루어놓은 커다란 공헌입니다. 소련인민이 공산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성과들은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사회주의제도의 결정적인 우월성의 시위로 되는것입니다.<sup>72</sup>

김일성은 허위 주장도 많이 함으로써 대안적인 사고능력이 부족한 북한주민들을 기만하였다. 북한이 지상낙원이자 지상천국이라고 주장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해외에서 살다가 조국을 방문하여 우리 인민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는 모습을 본 한 교포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지상낙원이고 인

7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년 4월 23일, 「김일성 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76-177.

72 김일성,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7년 12월 5일, 「김일성 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92.

민의 《천당》이다. 죽어서 《천당》에 가려고 할것이 아니라 이 《지상천국》에서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공산주의적시책들을 높이 찬양하며 부러워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교육의 나라》, 《세금없는 나라》로 널리 칭송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sup>73</sup>

북한은 기계공업 부문에 있어서 일본보다도 우월하다는 주장까지 하곤 하였다. 그런데 연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현재 북한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전전망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현재 북한이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의 기계공업의 발전전망은 일본 기계공업과 대비하면 훨씬 우월합니다. 일본 기계공업은 비록 지금 발전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원료림보장에서의 제약성과 사회제도의 락후성으로 말미암아 그 발전속도는 매우 제한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본에 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가지고있으며 사람들의 전진하려는 각오정도는 비할바없이 높으며 우리에게는 철, 유색금속 그밖에 다른 필요한 원료림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공업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빨리 따라잡을수 있다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지난날에 전아세아를 정복하고 쏘련에까지 침략의 손을 뻗치려던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으며 앞선다는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sup>74</sup>

73 김일성, “공산주의적 시책”, 정무원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10월 22일, 「김일성 저작집 3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205.

정권위기 시에도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고 주장하였다. 체제위기적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자 한 연설이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임에 틀림없다.

우리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온갖 예측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sup>75</sup>

## (2) 주체사상의 우월성 선동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는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주민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4 김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년 11월 20일, 「김일성 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pp. 584-585.

75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 선집 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심으로써 룡성번영하는 우리 인민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인류가 지주의 길로 나가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우리 수령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끝없이 존경하며 우리 나라를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높이 찬양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민족적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과 건설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식대로 해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sup>76</sup>

주체사상이란 사람중심의 새로운 선진사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하였다. 북한체제의 본질이 사람중심의 인본주의적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을 빙자하여 북한체제가 사람중심의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이 사회적인간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천명한것은 세계관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게 한 철학적발견으로 됩니다.<sup>77</sup>

76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 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45.

7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 선집 7」(평양: 조선로

북한에서 가장 많이 선전된 정치구호의 하나가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호가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호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은 “사상은 좋은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는 사실은 좋은 구호가 실제로는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호가 사용되지 않은 것보다는 사용된 것이 북한의 지도부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특징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라는데 있습니다.<sup>78</sup>

우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건설에 구현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놓은데 대해서와 오늘 동방에서 사회주의 기발을 튼튼히 지켜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sup>79</sup>

---

동당출판사, 1996), p. 206.

78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90년 5월 24일, p. 206.

79 김일성,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 혁명기유자녀들과 한 담화, 1992년 3월 13일, 1993년 1월 20일, 3월 3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07.

## 라. 인식의 시제 통제

북한이 주민들로 하여금 김일성과 북한체제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의 하나로 인식을 과거와 미래으로 돌리는 것이다. 현재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와 미래를 중심으로 인식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과거는 본받아야 할 거울이고 미래는 화려한 환상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 (1) 현재를 과거처럼 살기

북한이 주민들의 현재의 불만을 억제하고 김일성의 위대성을 부각하는 방법의 하나로 북한주민들의 현재의 인식의 비교틀을 과거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과거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현재에 재현하여 현재를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살게 하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과 북한주민 사이에 공통의 정서영역을 만들어냄으로써 1960년대 중 후반부터 강조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사회적 화두로 삼도록 만들었다. 195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2권은 당시 북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학습 교재였다. 이 교재는 각종 직장과 학교 및 정치학습 과정에서 강연, 연구토론회, 감상모임 등의 형식으로 반복학습되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항일유격대는 혁명전통의 담지자로서,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중은 회상기를 통하여 나타난 유격대의 공산주의적 풍모를 체득하여 현실에서 구현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즉, 대중은 유일유격대원의 사상과 투쟁의지, 투쟁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요구받은 것이다.<sup>80</sup>

이러한 정치학습의 의도는 '항일무장투쟁기'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항일 유격대들이 무장투쟁을 하여 나라를 지켰듯이 현재의 북한 주민들도 같은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현실의 어려움은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것이며 이나마 현실을 유지하려면 외부의 적과 싸우고 내부의 준동자들과 싸워야한다는 것이다.

과거를 미화하여 과거와 정서적 유대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서 사용되는 수단은 영화와 소설 등의 문화예술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북한의 문화예술의 작품들의 배경이나 소재는 항일무장 투쟁 시대나 일제 시대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다. 서정남의 북한영화 분석에 의하면 북한영화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절대적이다. 가령, 1970년에서 2000년까지 100여 편의 영화의 네레이티브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체제의 건설에 헌신한 1세대들의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는 메시지를 담고있다. 서사의 출발점은 현 제도와 체제를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그들이 회상을 통하여 과거를 재현하는 형식으로 2차 서사를 추동한다. 과거는 언제나 착취의 대상인 무산자들 중에 서서 가장 비천한 머슴이거나 부녀자이거나 미성년 어린 아이이며 그들의 부모는 일제의 폭격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징용으로 끌려가서 죽었거나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그리고 김일성 장군이 민족을 해방하고 친히 분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사회주의 조국의 품이 그들을 감싸 안아 사회의 주도적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환

기하고 있다.<sup>81</sup>

북한의 영화 한편을 예로 들어보자. 북한영화 「삶의 권리」<sup>82</sup>에서는 현재의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동요하는 현실을 가리기 위한 기획의도에서 과거를 소재로 설정하였다. 김일성이 일제와 지주계급으로부터 인민을 해방해 줌으로써 인민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를 건설해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 바쳐 사회주의제도를 지킬 것을 교양하고 있다.

이 영화는 배고픈 설움, 매맞는 설움은 참을 수 있어도 지주계급과 일제에 의해서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내레이션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자동무, 매맞는 설움, 배고픈 설움은 참을 수 있어도 참을 수 없는 더 큰 설움이 있다는 것을 기자동무는 모르는 것 같소, 계급적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심장에 새기지 못했소.

일제시대와 지주계급을 끄집어내어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미래의 환상 창조

---

81 서정남, 「북한의 영화탐사」(서울: 생각의 나무, 2002), p. 122.

82 「삶의 권리」(2001. 1. 18 북한 조선중앙방송 방영)

북한은 김일성을 개인숭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제통제의 기법 중의 하나로서 비교의 준거들은 과거에 두되 비전은 미래에 두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혁명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합니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보다도 래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끝없이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이 말은 자기는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이런 인생관, 이런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인생관, 신념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sup>83</sup>

북한은 더욱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역사적 과업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현재를 헌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우리 인민들의 사회적 지

83 김정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6년 1월 14일, 「김정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34.

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역사적사변이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과도기의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왔습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적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수행하여야 할 역사적과업입니다.<sup>84</sup>

북한 주민들이 기대해야 할 희망찬 미래는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경제발전 10대전망목표가 실현될 때이다. 추상화된 목표를 미래에 설정하고 계속혁명의 이론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건설되면 인간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선전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아직 10대전망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10대전망목표 달성을 위하여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도 북한주민들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공식적 항의를 못하는 것은, 체제의 탄압이 무서운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대전망목표가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혁명화가 완수되는 미래에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sup>85</sup>

84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86년 12월 30일, 「김일성 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213.

85 이철승 (가명, 전 북한 수련발전연구소 연구원, 1994년 귀순) 증언, 2003. 10. 9.

얼마전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원회의에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내놓은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휘황한 전망과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날에 대한 전망이 휘황찬란하고 투쟁목표가 뚜렷하여야 인민들이 그것을 하루 빨리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습니다. 86

북한은 10대전망목표를 매우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하여 북한 주민들의 노동을 동원하는 수단으로서도 활용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철 1,200만톤고지인데 우리는 이 고지를 능히 점령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쇠돌이 무진장하며 지금 쇠돌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산광산의 정광생산능력을 1,000만톤으로 늘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늘이는것과 함께 새로운 철광산들도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최근 함경북도 김책지구를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쇠돌매장지들이 발견되었는데 매장량이 많고 쇠돌의 품위도 높습니다. 우리가 광산개발에 필요한 대형설비들을 자체로 만드는것만큼 철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할수 있습니다. 쇠돌만 많으면 철을 얼마든지 생산할수 있습니다. 용광로, 소결로, 해탄로 같은것은 다 우리자체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500립방메

86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 전국공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3월 7일, 「김일성 저작집 2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45.

터용광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0립방미터용광로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립방미터용광로를 다음해부터 해마다 1기씩만 건설하여도 강철 1,200만톤고지를 1980년안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sup>87</sup>

김일성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였다. 미래를 결코 비관적으로 전망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이미 마련하여놓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우리 나라에는 풍부한 자연부원과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굳게 결심하고 달리붙어 투쟁할 때 우리에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앞날에 대한 뚜렷한 전망과 굳은 신심을 가지고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가 성과적으로 실현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sup>88</sup>

87 위의 글, pp. 145-146.

88 김일성, “일본사회당 기관지 《사카이신보》 편집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

10대전망목표는 1974년에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제3차 7개년계획 종료 기인 1993까지 유효한 구호였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 해까지 20년 동안 활용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한 미래의 파라다이스로 남아있다.

#### 마. 현재 문제에 대한 책임전가

절대자, 무오류자인 김일성이 50년간 통치한 북한은 어떤 모습인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그렇게 강조하였던 자립경제는 고사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세계각국의 식량원조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마치 김일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듯이 김일성 사후 북한주민의 삶은 더욱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sup>89</sup> 김일성 본인은 무오류의 지도자로 이상숭배되었으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나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 (1) 하위간부에게 책임전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이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중의 하나는 문제의 책임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밑에 있는 간

---

답”, 1985년 10월 9일. 「김일성 저작집 3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88.

89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158.

부들에게로 전기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북한주민들은 “중간간부층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출처없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sup>90</sup>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간부들은 행복의 행군, 지도자와 인민만 고난의 행군을 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고 한다.<sup>91</sup>

아래의 김일성 연설문에서 보듯이 홍수피해를 하위간부들이 나무심기를 게을리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신은 나무심기를 강조하였지만 아래 단위에서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큰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것은 레년에 없던 큰 비가 내린데도 원인이 있지만 주요하게는 나무를 많이 찍어 내고 제때에 심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당에서 나무심기를 전 군중적운동으로 벌릴때 대하여 계속 강조하였으나 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실속 있게 집행하지 않았으며 심은 나무도 관리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였지만 산림은 별로 늘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강하천정리와 포전정리, 도로정리와 도로관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망계획과 당면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쌓는 식으로 강하천정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겠는데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에서 그런 사업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더기비가 오면 강물이 넘쳐 나 도로와 부침땅이 못 쓰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구장지구에 가 보니 강바닥이 많이 높아 졌습니다. 지방에 나가보면 도로 관리도 잘하지 않고 포전정리도 잘하지 않은데가 적지 않습니다.<sup>92</sup>

90 이철승 (가명, 전 북한 수련발전연구소 연구원, 1994년 귀순) 증언, 2003. 10. 9.

91 윤0실 (전 북한 주사약공장 노동자, 2002년 12월 탈북) 증언, 2003. 8. 18.

92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

북한의 경제난을 정무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자신은 당 사업과 군대 문제를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경제문제에는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 명분이다.

지금 나라의 경제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원을 비롯한 국가경제기관들에서 나라의 경제를 추켜 세우기 위한 대책적인건 하나 똑바로 제기하는것이 없습니다.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연구도 하지 않고 창발성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당사업도 보고 군대사업도 보아야 하기때문에 경제관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일일이 다 보아 줄수 없습니다. 경제사업은 경제일군들이 맡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가지고 있고 전투력 있는 당을 가지고 있으며 당에 충실하고 근면한 인민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경제문제를 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이 강화되고 사회주의시장이 없어 진 조건에서 나라의 경제사업에 난관이 적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조직사업을 잘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옹계 조직동원하면 조성된 난관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경제관리사업을 짜고 드는가 하는데 있습니다.<sup>93</sup>

---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8월 11일, 「김정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04.

93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6년 4월 22일, 「김정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60.

김일성과 김정일이 문제의 책임을 하위 간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주로 간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요령주의에 빠져 있다고 질타하는 방식이다. 주체사상이 발전과정으로서 ‘주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김일성의 연설<sup>94</sup>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주인다운 자각성 없는 작업태도들을 질타하였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것이 선전선동 사업의 주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노동자, 농민, 특히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정권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높으면 노동자들이 자기의 직장과 기계설비들을 애호하며 일도 열심히 하고 규율도 잘 지키고 반혁명분자외도 잘 싸우고 모든 것을 주인답게 할 것입니다. —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는 열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혁명활동을 할 때 돈을 주고 시켜서야 누가 그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혁명을 해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뿐 아니라 조국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잠도 자지 않고 배고픈 것을 잊어버리고 투쟁하였습니다. 노동자들도 자신의 노동이 자기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자각할 때에는 모든 힘과 열성을 다 하여 일할 것입니다.

70년대 김정일의 연설에서도 간부들의 ‘요령주의’를 질타하는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

94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지금 일군들가운데는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입장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눈치놀음을 하면서 요령주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경제부문의 일부 지도일군들은 사업과정에서 무슨 결함이 나타나면 그 원인을 주관에서 찾고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발뺌을 하는가 하면 아래일군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똑똑한 결론을 주지 않고 질질 끌거나 적당히 해보라는 식으로 대답하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있습니다.<sup>95</sup>

형식주의, 요령주의에 대한 질타는 60년대 70년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에서도 무수히 많이 나타났는데 1990년대 중반의 김정일의 연설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일군들속에서 사업을 눈가림식으로 실속없이 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사업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근본적으로 배치될뿐아니라 당과 혁명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사업을 형식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걸치레로 빌라맞추는데 버릇되고 건달풍에 물젖게 되며 나중에는 당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을 하는것과 같은 혁명가답지 못한 현상들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sup>96</sup>

95 김정은,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12월 3일, 「김정일 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25.

96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 조선

김일성과 김정일 연설에서 하위 간부를 질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간부들의 개인차원의 이기주의가 대민 업무에서 나타난 행위양식이 바로 관료주의와 세도주의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일꾼들이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일꾼들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대신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며 자기 개인의 리익과 안락만 추구하면서 특권행세, 귀족행세를 하고있습니다. — 일꾼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현상은 그것이 크건작건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 당이 이룩해놓은 업적을 손상시키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금이 가게 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해독작용을 합니다.<sup>97</sup>

김일성의 지시사항 중에서는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하위 간부들이 책임질 수 밖에 없는 방식의 지시가 많다. 지시의 내용이 최적점을 찾기가 어렵다든지, 실현 불가능한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잘 드러난다.

---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김정일 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05.

97 김일성, “지도일꾼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12월 19일, 「김일성 저작집 1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08.

학생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과외시간에 사회적으로동에 일정하게 참가시키는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사회적으로동에 지나치게 많이 동원하여 학과학습에 지장을 주거나 교육강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sup>98</sup>

김일성은 또한 모든 문제를 다 제기하고 거론하지만 우선순위가 없다. 모든 것이 다 가장 중요하다는 식의 연설을 한다. 실제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하위 간부들은 어려움에 봉착하며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가령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연설은<sup>99</sup> 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20페이지에 달하는 매우 긴 연설문을 통하여 빠짐없이 다 거론하였다. “나는 이제부터 사회주의교육체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부터 시작하여 교원의 질을 높이는 일, 실험실습을 강화하는 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일, 외국어를 잘 알아야 하는 일, 학교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일, 실험실습설비를 갖추는 일, 종이혁명을 일으키는 일, 도서관을 많이 짓는 일, 온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일, 공장대학을 늘이는 일,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잘 하는 일 등 끝말 이어가기 식으로 정책을 나열한다.

---

98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0월 1일, p. 446.

99 위의 글.

## (2) 체제결함보다는 개인에게 책임전가

북한의 정치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의 하나는 문제의 근원을 체제나 지도자보다는 나 자신과 나 주변의 조직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모든 문제는 지도자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중간급 이하 간부와 나 자신, 내가 속해있는 말단 조직에 있다고 판단하게끔 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게하는 것은 생활총화의 운영방식에 있다. 생활총화는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과 생각 등에 대한 것은 물론 가정과 그 외의 시간과 생각과 활동에 이르기까지 자아비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 사회, 조직, 집단, 간부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과 분석 및 판단과 결론, 대안에 이르기까지 하향적 문제해결구조의 정착을 고착화시킨다. 이것은 다시말해 수령, 정치, 제도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나 주변 및 말단 조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하향 지향방식의 해결법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생활총화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긴장과 갈등의 원인을 개인 주변에서 탐색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그것을 자신과 주변에서 찾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북한정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을 개인차원으로 수렴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북한주민은 당생활총화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자신한테서 우선적인 결함을 발견하도록 교육받는다. 체제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원인을 김일성과 체제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자신을 수양하도록 교육받는다.

당원들은 당 생활총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자기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직접 비판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비판받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자극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게 됩니다. 당생활총화제도를 잘 세워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 수 있고 혁명화과정을 다그칠 수 있으며 그들을 당정책 관철에 적극 조직동원할 수 있습니다.<sup>100</sup>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생활총화에 높은 열성을 가지고 참가하여 자기의 잘못을 똑바로 찾아 제때에 고치며 동무들의 잘못을 따듯이 깨우쳐주어야 합니다.<sup>101</sup>

이래에서 보는 대로 문제의 책임을 자기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로 전가하는 것을 경계한다. 문제의 원인을 주관(즉, 개인)에서 찾고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애쓰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본인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면서 일반주민들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군들 가운데는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입장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눈치놀음을 하면서 요령주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

100 김정일, “전 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 제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21일, 「김정일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01 김일성, “소년단원들은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하자”, 조선소년단창립 35돐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1981년 6월 5일, 「김일성 저작집 3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p. 149.

습니다. 행정경제부문의 일부 지도일군들은 사업과정에서 무슨 결함이 나타나면 그 원인을 주관에서 찾고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발뺌을 하는가 하면 ...<sup>102</sup>

마치 기독교에서 개인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로지 도와줄 구세주이며 기도의 대상인 것과 같이, 북한에서 김일성은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이 절대화,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김일성 개인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기독교인들이 성경말씀에 의거하여 살듯이 북한주민들은 당 정책에 의거하여 살도록 요구받으며 체제에 동조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sup>103</sup>

### (3) 내부의 적에게 책임전가

김일성과 김정일은 문제의 책임을 개인수준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내부의 적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연설을 자주한다. 북한은 대체로 긍정적 모범 따라배우기 방식으로 정치사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적을 항상 설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주요 시대적 전환기나 정치적 격동기마다 내부의 적을 설정하는 경향이 많

---

102 김정일,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12월 3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25.

103 이철승 (가명, 전 북한 수련발전연구소 연구원, 1994년 귀순) 증언, 2003. 10. 9.

았다. 내부의 적을 암해분자, 암해 책동문자, 반동분자라고 규정하곤 하였다. 농업협동화 시절에 농업협동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딱지를 붙이고 가상의 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농촌에서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합니다.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의 투쟁에서 우리 당의 관대정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관대정책은 동요분자들에게 관대하라는 것이지 결코 적들에게까지 관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과 동요분자들을 옳게 가려 극소수의 적들은 무자비하게 치고 동요분자들은 설복하고 교양하여 그들이 적의 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sup>104</sup>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기 체제의 위기 시에 내부의 적을 경계하는 언어들로서는 ‘사회주의 배신자’ 또는 ‘반혁명 책동’이라는 등의 가상의 적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여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우경기회주의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혁명책동이다.<sup>105</sup>

104 김일성, “농촌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5년 2월 2일, 「김일성 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21.

105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 수 없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

인민정권은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계급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은 인민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더 악랄하고 교활하여집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광범한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반혁명과의 투쟁에 적극 동원하여 그 어떤 계급적원수도 합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독재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진압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합니다.<sup>106</sup>

북한은 내부의 적을 설정하고 그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계급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에서 계급투쟁은 지도자 우상화와 사회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에서 계급투쟁은 사회적 긴장을 유발하고 정권의 정책과 요구들에 대한 당위성을 보장하며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국가적 충성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계급투쟁은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분할과 대립, 갈등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자연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방해한다. 이로써 개인들을 원자

---

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48.

106 김정일,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전국인민정권기관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2월 21,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72.

회시켜 정권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4) 외부의 적에게 책임전가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숭배의 전략으로서 내부의 적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을 설정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 미국과 남한이 오랫동안 외부의 적으로 활용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외부의 적은 이제 미국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경제난을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1992년 핵문제 돌출 이후 미국이 핵전쟁을 기도하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을 폭격하여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 나라에는 집 한채 성한것이 없었습니다. 평양시만 놓고보아도 남은것은 두세채의 건물뿐이었습니다.<sup>107</sup>

과거의 전쟁을 미국이 도발했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전쟁을 기도하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미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극동에서 커다란 엄중성과 위협성을 띠고있습니다. 미제는 침략적인 아세아전략에 따라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 조작책동을 다그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군사

107 김일성, “우루과이 3월26일운동 대표단과 한 담화”, 1993년 2월 20일, 「김일성 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75.

기지를 늘이고 핵무기와 여러가지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습니다. 남조선에 4만여명의 침략군대를 주둔시키고 1,000여개의 핵무기와 수많은 대량살륙무기를 끌어들이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을 련이어 벌리고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배격을 받고있는 중성자무기까지 남조선에 배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가자 위험한 전쟁화약으로, 미국의 핵전쟁기지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매우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sup>108</sup>

김일성은 미국이 북한의 공업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경제를 봉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난의 책임을 미국의 경제봉쇄에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자본주의제도를 복구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여러 방면으로 저해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은 공화국북반부에 자본주의사상을 침투시키려고 미쳐날뛰고있으며 우리 나라 기간공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sup>109</sup>

108 김일성,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자”,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1983년 7월 3일, 「김일성 저작집 3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20.

109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

아래의 연설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군사위협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다 보니 경제계획 추진에 장애고 되고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민이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기간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끼리브해위기를 조성하고 월남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인 큰 힘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sup>110</sup>

대외적 요인을 어렵다고 상황 정의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과거 남한에서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도 대외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1984년은 북한에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미국과 남한의 침략책동을 운운하면서 위협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세계정세가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로골화되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긴장상태는 극도로 격화되고있으며 새 세계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적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군사적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반공, 반공화국 소

---

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일, 「김일성 저작집 3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101-102.

110 위의 글, p. 103.

동을 미친듯이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 앞에는 적들의 횡포한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결히 지키며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111

1990년 10월은 북한에서 위기적 상황이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붕괴하였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김일성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에서 찾지 않고 제국주의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이행》 전략에 따라 총포소리없는 전쟁을 벌여놓고 사회주의를 공격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운동안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망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후퇴하고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적들에게 투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운동은 시련을 겪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적기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사에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노래가사에도 있는바와 같이 비겁한자들이 간다 해도 혁명하는 사람들은 굳게 뭉쳐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것입니다.112

111 김일성, “신년사”, 1984년 1월 1일,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11.

112 김일성, 미국사회로동당대표단과 한 담화 1990년 10월 5일, 「김일성 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496-497.

1992년에 행해진 김일성도 주목할만 하다. 이 연설은 소련이 붕괴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연설인데 문제의 책임을 제국주의의 고립 봉쇄 책동과 자유화 바람을 이용한 평화적 이행전략으로 간주하면서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 질식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 나라를 《자유화》바람에 녹이나 한심한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있는 이전 쏘련이나 동구 리파나라들과 같이 만들어보지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목적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압력을 가하고 고립봉쇄책동을 강화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이며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것입니다. 113

김정일의 연설도 마찬가지로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연설문의 제목 자체가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사회주의 복원에 문제가 있으면 모두 외부의 위협과 침투의 결과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우경기회주의사상의 부식작

---

113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92년 12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

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작용을 한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질식시키기 위하여 일찍부터 침략과 압력, 봉쇄와 회유를 비롯한 갖은 파괴책동을 직접 감행하는 한편 공산주의운동 및 노동운동의 상층에서 나타난 혁명의 타락분자, 변절자들을 저들의 앞잡이로 리용하여왔다.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공산주의운동에서 일어난 사상적혼란과 우여곡절은 다 그 상층에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난것과 관련되어있다.<sup>114</sup>

북한지도부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대외적 환경의 변화를 식량난의 요인으로 전가했다. 외화가 없어서 식량을 사오지 못하는 현실의 원인에 대하여 외부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90년대 현재의 대외적 상황이 과거의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60년대나 1970년대에는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에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적지 않게 도와 주었습니다. 그때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거래도 다 사회주의적방식으로 하였기때문에 모든것이 유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주의시장이 붕괴되다 보니 무엇을 하나 들여 오자고 하여도 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외화가 없이는 원유1kg

114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김정일 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48.

숨1kg도 구할데가 없습니다.<sup>115</sup>

(5) 자연재해로 책임전가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숭배를 조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 자연재해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을 수해 및 한해 등 자연재해로 원인을 전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3~4년동안 련이어 보기 드문 자연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 지어 미국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사회주의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것을 기적이라 하고 있습니다.<sup>116</sup>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대량의 아사자가 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은 제국주의의 경제봉쇄와 자연재해로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식량문제를 풀어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투쟁에 힘 있게 떨쳐 나설수 있습니다. 공장도 사람이 돌리고 생산과 건설도 사람이 하는 것만큼 우선 먹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

115 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김정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33.

116 위의 글, p. 294.

수 없습니다. 더우기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이 경제봉쇄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나라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먹는 문제부터 풀지 않고서는 새로운 진군을 다그쳐 나갈수 없습니다.<sup>117</sup>

## 2. 다양한 제도적 자원의 동원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개인숭배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품들과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평양의 민수대 언덕의 김일성동상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동상을 세워놓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김일성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혁명전적지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세워놓고 있다. 금강산과 같은 명소마다 김일성의 말을 새겨놓고 있다.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위하여 동원되는 보다 더 중요한 측면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 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운영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개인숭배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의 하나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다. 기독교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듯이 북한에는 김일성의 교시를 학습하고 각종 정치적 집회를 하기 위한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 있다.<sup>118</sup> 김일성혁명사상연

---

117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55.

118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상: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서울: 통일연구원, 2000) 참조.

구실은 모든 리, 읍, 도의 지역단위,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군대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모든 단위의 중앙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가장 좋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의 건물은 당에서 규격 화한 표준설계에 맞추어 건축하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이 비슷한 형태를 띤다. 연구실의 본당에는 김일성의 석고상 또는 초상화가 맨 앞 제단에 놓여 있고 제단에 이르는 중앙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다. 북한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그 안에서는 기침도 할 수 없고 행사 외의 잡담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곳에는 김일성의 교시집, 저작, 혁명전통연구자료 등 김일성의 혁명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다. 이곳에서 주로 김일성 사상 집중강의와 학습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학습활동 외의 각종 선서모임이나 충성의 편지 전달 모임 등의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모시는 장소임과 동시에 예배하는 장소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나는 장소인 셈이다.<sup>119</sup>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 하도 비슷하여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 나. 회상실기 교양

북한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는 회상실기 형식의 책을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읽히는 것이다. 회상실기란 김일성이 실제 주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는지를 주위에서 지켜본

---

119 위의 책, pp. 100, 104.

사람들의 증언록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다. 즉, 김일성의 덕성과 관련된 회상기로서 김일성을 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김일성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가거나 다 죽었다고 한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이유없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과 가깝게 지낸 사람들로써 친척이 아니거나 간부급으로 등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제거하여 사회와 격리시켰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의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고향의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오지 못하고 사회와 격리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실제 모습이 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가령, 김일성 자녀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였던 사람이 자기 친정집에 한번도 못 왔다고 한다.

북한은 김일성 및 김정일과 간접적 인연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이름으로 회상실기를 쓰도록 하였다. 김일성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체험수기 형식으로 집필된 것으로 위장하여 김일성이 행적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김일성과 어떻게 알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를 체험수기 형식으로 작성하게 한 것이다. 소설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형식의 소재이다. 마치 김일성과 같이 살았던 것처럼 써어져 있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거짓말을 있는 사실처럼 가공하여 집필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작가들이 감동적으로 집필하고 이름만 그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회상실기는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수단이다. 픽션이 아니고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덕성의 증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sup>120</sup>

120 김난애 (가명, 전 북한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년 귀순) 증언, 2003. 10. 5.

북한에서 회상실기로 알려진 것은 「인민들 속에서: 회상실기」 인데 이외에도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도 50년대 이후 많이 활용되었다. 김정일을 주체로 한 회상실기는 「덕성실기: 주체시대를 빛내이며」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이 책들을 주기적으로 읽고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기상시간이 새벽 5시인데 5시부터 유선방송으로 회상실기를 읽어주기도 한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감성적인 성우의 목소리로 읽어주기도 하며, 아침 출근 시간에 방송차가 가두 방송으로 읽어주기도 한다. 가두 방송은 격조 높게 읽어주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며 내가 이 사회를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한다.<sup>121</sup>

가령, 「한평생인민을 위하여시여」라는 회상실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해방을 맞이한 강산에 새조국 건설의 열정이 굽이쳐 흐르던 때인 1947년 봄의 어느날이었다. 광량반 기슭의 한 제염소의 소금밭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금 찾아떠나셨다는 기별이 전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신다!

소금밭의 여기저기에 널려져 일하던 로동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알이듣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리둥절해있는데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일군들의 앞장에서 소금밭의 두렁길을 걸어오시는 것이었다. ...

참으로 그 거룩하신 모습에는 오랜 세월 세상에서 버림받아온 자식의 일

121 윤0실 (전 북한 주사약공장 노동자, 2002년 12월 탈북) 증언, 2003. 8. 18.

터를 찾은 아버지의 시려깊은 심정과 한없는 친근감이 풍기고 있었다.<sup>122</sup>

#### 다. 극장국가화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숭배를 조장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지도자와 주민간의 감정의 일체화를 이루어내는 기술을 발달시켰다. 그 방법의 하나가 북한을 극장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동원 방식이다.

북한은 ‘극장국가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주민들을 거대한 연출의 세트 속에서 살도록 하고 주민들은 항상 관객으로서 무대와 배우들과 호응하는 극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극장 속에서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 살도록 연출하는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가령, 과거의 지주와 일제에 싸워 승리한 과거의 역사를 아직도 무대에 올려 놓고 관람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고마움을 느끼게 하며, 공산주의 건설과 10대전망목표가 달성될 미래를 위하여 현재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다. 현재는 문제가 있어도, 승리의 과거가 있고, 장밋빛 미래가 있다는 연극을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많은 문학과 예술이 아직도 항일빨치산 시대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sup>123</sup>

극장국가로서의 북한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연출방식은 집단주의적 공동체의 감동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 속에서 상호의존적인 감정구조를 더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워낙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고 집단적 공동체

122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시여」(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2), pp. 30-31.

123 이철승(가명, 전 북한 수련발전연구소 연구원, 1994년 귀순) 증언, 2003. 10.

적 감정구조를 가지기 쉽다. 개인으로는 혼자 살기 어렵고 집단에 의하여 생계가 보장되는 체제에 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직장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받아서 집단에 의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는 특히 부족경제(shortage economy) 속에서 형성된다. 이런 처지에서는 감정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 집단의 가치를 중심으로 감정구조가 형성된다고 한다. 같은 운명공동체로 느끼는 감정인 것이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은 집단감정을 조종하는 연설의 기술이 발달해 있다. 집단이라는 동일한 조직 속에서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전체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북한주민들의 직장환경, 주거환경, 학력이 대체로 비슷하며, 가치관과 문화가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장국가라고 명명할 수 있는 대중감정 동원의 수단들을 활용하면 쉽게 주민들의 감정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거 80년대 순천 비날론 공장이 실패하였을 때, 김일성이 현장에 나와서 행한 연설이 아직도 주민들의 의식에서 남아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 인민들 좋은 인민들입니다. 당이 인민들에게 잘 해주지도 못하였는데도 우리 인민들은 변함없이 당을 따르고 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당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좋은 인민들입니다.

이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였다고 한다. 지도자와 주민간의 감정의 일체화를 이루어 냈다는 것이다.

## 라. '수령형상 창조'를 위한 문예정책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숭배에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문학과 예술이다. 북한에서 문학과 예술은 소위 수령형상창조라는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령형상창조라는 것은 북한 문예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수령형상창조'는 한마디로 문학예술 속에서의 이상화 작업을 의미한다. 1966년 김정일의 지시로 수령형상화가 문예의 핵심 목표로 제시된 이후 북한의 문예는 수령형상화를 위하여 존재하였다.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문학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한 문학을 의미합니다.<sup>124</sup>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1980년 이후부터 같은 주제에 식상하여 독자들이 외면하자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숨은 영웅 그리기로 문예정책의 방향이 바뀌기는 하였지만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또 다시 수령형상화로 복귀하였다. 수령형상화의 목적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형상화하여 김일성 개인숭배를 고양하는데 있다.

---

124 김정일,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6년 2월 7일, 「김정일 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11.

수령형상화를 위하여 제작된 영화의 예로 1980년부터 제작된 다부작 영화의 하나인 예술영화 “조선의 별 1부”를 간단히 보자.

영화의 배경은 일제시기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 공산주의자들의 세력 분파가 극심하였던 1920년대이다. 신간회의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청년운동대회에서 김혁과 설은주가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김혁은 친구 상석으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의 분파 회합에 참여하게 되나 일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파벌싸움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친구인 상석이 상해로 떠나고 뒤이어 김혁도 상해에 도착하지만 파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상석이 죽음을 맞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절망상태가 된 김혁은 상해에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방향을 하게 된다. 방향성을 잃고 헤매던 그에게 문일광으로부터 동경유학 시절의 친구인 차광수가 길림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찾아 가게 된다. 도착한 길림에서는 일제 경찰에 대항에 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한창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데모에 참가한 사람들을 지휘하는 김성주를 처음 보게 되었다. 그는 사상적인 면에서나 행동에 있어서의 설득력 있는 연설과 위대한 모습에 감동한 김혁은 이후 차광수 김성주 등과 함께 일하게 된다. 비로소 그곳에서 정체성을 찾은 김혁은 김성주의 인간적인 모습 등에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어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를 창작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김혁은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고 회의감에 빠져있던 상태였으나 김일성을 만나면서 진정한 혁명의 공산주의자로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무자비한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기나긴 투쟁을 통해 광복을 이루게 할 수 있었던 것과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인 혁명적 동지애로 굳게 뭉쳤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25</sup>

## M. 비판 없는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정치사회화 전략

### 1. 조건반사이론에 입각한 정치사회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미화하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는 개인숭배 자체의 본질을 인식하거나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사회화의 전략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김일성 개인숭배를 위한 전략은 김일성 개인을 이상숭배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한테서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숭배는 허구적인 사실을 조작하여 이를 과장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폭로하여 비판하는 것을 우려하여 비판적 사고의 싹을 원천봉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간개조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는 비판없는 순종적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사회화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인간개조리론」에 의하면 인간개조의 목적은 김일성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김일성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

125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 예술영화 <조선의 별>에 대한 실효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 「로동신문」, 1984년 2월 4일, 3면

사상전에서는 수령님의 교시, 당의 의도대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것이 첫 공정으로 되어야 합니다.<sup>126</sup>

이러한 인간개조사업의 목적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이 김일성의 생각대로 맹종하는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이나 이론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 가령, 남한 사회과학계에서 종속이론, 맑스-레닌주의, 맑스주의 비판이론 등이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유일사상만 허용되고 가르쳐지는 북한에서 주민들의 사고의 폭이 얼마나 협소한지는 짐작이 된다.

탈북자 이철승은 3대혁명소조에 나갔다가 한 선배로부터 “물질이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라는 단순한 질문을 받고 그 새로운 문제의식 때문에 충격에 빠진 적이 있으며 그로인해 독자적인 사고를 처음으로 해보았다고 한다.

문제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70년대 들어서는 맑스-레닌주의 관련 서적마저 감추었다. 김일성의 사상만을 교육하기 위하여 북한판 분서갱유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외부의 이론, 즉, 비판적 이론이나 시각을 습득할 수 있는 책이 북한에는 없어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형성되기 어렵다. 북한내부에서 북한을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도 비판적으로 보기 어

126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주체사상총서 6), p. 234.

럽다고 한다. 남한에까지 탈북해온 탈북자들이 김일성을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직장배치 통제권을 통한 정치사회화

북한에서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개인숭배하고 그 체제에 구속되어서 순종적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은 직장이라는 폐쇄조직(total institution)의 구조이다.

북한주민은 일생동안을 폐쇄조직 속에서 묶여서 살아간다. 학창시절의 저학년은 소년단, 고등중학교 4학년부터는 사로청에 가입하며, 당에 입당하면 당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에서 요구하는 규칙에 매여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 조직은 주민들을 정치적인 교육에 동원하기도 하고 정치행사에 동원하기도 하는 정치사회화 교육이자 동시에 동원조직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로청이나 당조직처럼 정치조직이 아니면서 북한주민을 구속하는 조직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 직장이다.

### 가. 국가 통제 하에 있는 직장 배치의 특징

북한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위한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하나는 직업의 국가독점과 직업을 통한 사회통제이다. 북한은 정권초기부터 인간의 생업을 위한 직업을 정치도구화하여 이용하였다.

북한에서는 인간의 생업에 가장 중요한 직장배치의 배치와 직장으로부터의 사직 및 이직이 개인의 자율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독점적 권한에 의하여 국가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직업은 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의 선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반주민들의 직업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따르는 사회부문별 노동력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북한주민들은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정해주는 직장에서 일하게 된다. 따라서 직장은 배치되는 것이지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을 “적재적소”라는 미명 하에 직장을 정해주고 있으며 한번 부여받은 직장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옮기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어렵고 힘든 부문(3D업종)인 광산, 임산, 탄광, 철도, 건설, 농업분야의 직업들은 처벌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를 물려가면서 종사하여야 한다.<sup>127</sup>

중노동분야에 집단적으로 배치된 사람이 그 직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집 가산을 들먹일 정도의 뇌물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직장에서 나오기 위해서도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직업은 사회통제의 장치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실업자와 무단결근자는 범법자이고 6개월 이상 배치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징역감이다. 그만큼 북한은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경우이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많이 참작되는 부분은 직업의 유무이다. 북한 주민이 국가에서 제정한 합당한 이유가 없이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은 범죄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대단히 비도덕한 행위로 간주하

127 김난애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10 귀순) 증언

고 있다.

사실 북한사회는 생존을 위한 직업구조에 모든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으며 직장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정치조직인 당과 근로단체조직이 씨줄과 날줄이 엮이듯이 엮여져서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2중, 3중으로 진행하여 왔다.<sup>128</sup>

북한의 당 간부든, 보위부 일꾼이든, 노동자이든 모두가 국가라는 대기업체에 고용된 샐러리맨에 불과하며 정치조직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정치적인 실수이든, 경제 실무적인 실수이든 그에 대한 처벌은 모두 직위해제라든가 무보수노동, 철직 등의 직업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직업이 통치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출신성분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 직업배치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에 한번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직업에서 근무하려면 필요한 기술자격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건, 사회도덕적인 측면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해당직종에서 일하는 과정에 과오를 범하면 그 직업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나 기피하는 농장이나 광산, 탄광, 임산, 건설직장 등 중노동직업으로 좌천을 당하게 된다.

이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참작되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대로 그 직장을 이탈할 수도 없다. 게다가 부모의 직업은 자식 대에까지 물려주게 되어있어 한번 잘못 빠지면 영원히 수렁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다.

---

128 위의 증언

가령, 한 예로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 양강도에 있는 해산 농림대학의 사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94년 해산 농림대학에서는 14명의 교수들이 일시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박사학위를 받게 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동료교수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련하였고 그날이 바로 1994년 7월 9일이었다. 김일성의 사망비보를 갑자기 받게 된 교수들은 이미 준비한 점심식사를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먹기로 하였다. 하지만 수령의 사망비보를 받고 태연히 점심을 먹은 것이 죄가 되어 그로부터 1개월 후 14명의 박사들은 모두 임산노동자로 좌천되어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증언자가 살던 집의 옆집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수인 여학박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형님이 체제와 관련된 발언을 잘못하여 정치범으로 체포된 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직위에서 좌천되어 풍서임산사업소 노동자로 되었다. 오랜 세월동안 학자로, 교수로 살아온 그에게 임산노동은 너무도 힘에 부치는 작업이었고 얼마 못가서 병들어 늙게 되었다. 그의 부인은 소련 모스크바종합대학에서 북한 최초로 유학할 정도의 엘리트이고 미생물학에 있어서는 1인자라고 할 정도로 실력기였으나 남편 때문에 함께 평양에서 추방되어 산간오지에서 임산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29</sup>

이와 같이 북한에서 직업은 생존의 도구일 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배정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특혜이자 최고의 상벌제도이며 통제기구인 것이다. 대다수의 정치범수용소가 외부와 격리된 지역에서 탄광이나 광산, 임산, 농사와 같은 중노동이라는 점과 사실상 정치범수용소가 아니더라도 상벌제도에 이용된 모든 중노동은 실제로 직업이라는 분야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

129 위의 증언

#### 나. 직장을 통한 정치사회화의 결과

이러한 직업배치 정책의 결과는 북한주민들에게 반항보다는 순종을 선택하게 했고 지위향상과 출세를 위한 충성경쟁을 조장하면서 당원이 되려는 강한 일념을 가지도록 하였다. 북한주민이 당에 입당하고 싶은 것은 보다 나은 권력구조에 편입되고 싶기 때문이며, 직업을 통한 신분상승을 이루고 싶어서이다.

북한에서는 의식주 문제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든 조건들이 직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북한주민들은 당과 국가에 순종하고 충성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직업을 통한 통제의 결과 북한 사람들은 체제의 공모자로 사회화된다. 한스-요하임 마즈가 동독 사람들에 대하여 지적한 대로<sup>130</sup> 북한주민도 북한체제의 공모자가 되었다. 북한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고 하는 것은 김정일만이 아니다. 북한 사람 모두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주민들도 참여한 부분이 있는 셈이다.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들이 김정일의 행위를 묵인해주었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개인이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입당의 동기는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권력상승의 욕구 때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권력을 추구했듯이 개인도 작은 부분이나마 권력을 추구했다. 권력을 위한 욕구를 김정일이 이용한다. 북한주민들은 잘못하면 죽고, 잘만 보이면 부귀영화가

130 한스-요하임 마즈 저, 송동준 역, 「사이코의 삼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치려진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sup>131</sup>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유지시켜 오는 전 과정에서 직업구조가 한 역할은 북한의 통치기구들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국가가 직업을 독점한 상태에서 직업구조에 침투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북한 사회는 사상최악의 기근과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견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독재 권력이 직업을 독점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의 북한 체제는 좀더 다른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다. 직장배치 통제권의 두가지 의미

사회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직업배치 정책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직업제도를 사회경제적 발전사적 측면에서 중세의 농노제와 비교하여 보고, 어빙 고프만의 폐쇄조직(total institution)의 개념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1) 농노

북한주민의 직장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중세봉건시대의 농노의 개념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농노의 기원은 로마 제정 말기의 부자유 소작인(콜로누스)의 자손이거나 몰락한 게르만의 자유민으로, 오랜 혼란기에 유력자에게 토지를 바쳐 그 보호 하

---

131 김난애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10 귀순) 증언

에 들어간 사람들이었다. 고대 노예와 근대 자유농민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영주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

중세 봉건 영주의 관할 하에 있던 농노들은 봉건 영주가 소유한 영지를 절대로 떠날 수 없었으며 평생 이동의 자유 없이 그곳에서 뼈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혼도 영주가 짝지워 준 대상과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농노는 영지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독자적 생활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엄연히 영주의 재산이었다.

근대 자유 농민이 지주에 대한 지대만을 지불하면 되고 신분적으로 지주와 평등한 자유민인데 대하여, 농노는 우선 토지에 매여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었으며, 지대 이외에 각종 부담(인두세, 시방세, 혼인세)을 지고 있었다. 영주의 재판권의 지배 하에 있었다.

농노에게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토지가 대여되어 자립적 농업경영이 허용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증으로서 농노주에 대한 인신상의 예속관계가 수반되어, 노역을 비롯한 현물 및 화폐의 공조(貢租)를 제공해야만 하였다. 특히, 농노주의 직영지 경영에 노역을 바쳐야 하는 등 농노주에 대하여 강한 인신예속의 상태이었다. 농노는 인신이 하나의 물건으로서 예속된 노예와 비교하면 보다 자립적·자유적 존재이지만, 일체의 전근대적 속박에서 해방된 독립 자영농민과 비교하면 자립성이 보다 낮으면서 부자유한 존재였다.

생산수단이 직접 생산자와 결합하는 농노제는 인신적인 '경제외적' 강제를 통하여 지배적 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점에서 농노는 봉건적 농민과 같은 뜻이 된다. 고대의 노예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단순한 물건·도구로서 주인의 소유대상이 되었고, 근대의 임금노동자가 생산수단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것보다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봉건사회의 농노가 토지·농구·역축(役畜) 등의 생산수단을 가졌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경우는 중세봉건제의 농노와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한편으로 신분이 더 예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농노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자신의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지만 북한 농민은 그렇지 못하다. 영지를 자율적으로 떠날 수 없다는 것도 북한 주민의 경우와 유사하다.

## (2) 폐쇄조직

폐쇄조직(Total Institution)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수인이 외부사회와 단절된 채 밀폐된 조직 속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곳으로 정의된다.

폐쇄조직은 외부사회와의 사회적 교류(social intercourse)가 제한을 받으며 자물쇠가 채여 있고, 높은 벽이 있으며 철조망이 쳐있고, 절벽, 물, 숲, 높이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탈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곳이다.<sup>132</sup> 고프만은 폐쇄조직을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1. 생활능력이 없고 사회적 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맹아, 노약자, 고아원, 결인의 집이 여기에 해당된다.
2. 능력이 없지만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기관으로서, 결핵요양소, 정신병원, 나환자촌 등이 포함된다.

---

132 Erving Goffman,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1961), p. xii.

3.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유치장, 교도소, 포로수용소, 강제수용소 등이다.
4.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군 부대, 배, 기숙사학교, 노동수용소(work camps), 식민수용소 등이다.
5. 세상으로부터 은둔하여 종교인을 수양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수도원, 수녀원 등이다.<sup>133</sup>

이들 다섯가지 유형은 다양한 폐쇄조직을 포괄하기 위하여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네 번째 항목이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체제적 특징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프만은 이 폐쇄조직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모든 생활이 단일의 장소, 단일의 명령조직 하에서 행해진다.
2. 개인의 하루하루 일상생활은 비슷한 무리의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두 같이 취급받으며 같은 일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3. 하루 일과의 매 단계가 타이트하게 시간표가 짜여있으며, 모든 일과의 순서는 상부의 공식 규칙에 의하여 규정된다.
4. 다양한 행위들은 조직의 공식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획된 단일의 합리적 계획표에 의하여 종합되어 있다.
5. 폐쇄조직은 다수의 관리당하는 집단인 재소자(inmates)와 소수의 관리하는 기관원(staff)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대규모 인원을

---

133 Ibid, pp. 4-5.

관료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의 특징이다.

6. 재소자는 벽의 바깥세계와 격리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다. 기관원은 하루 8시간 베이스로 일하며 바깥세계와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7. 재소자와 기관원은 각각 상대를 적대적인 편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관원은 재소자를 똥가를 숨기고 있으며,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반면, 재소자는 기관원을 우월감을 가지고 고자세이며 비열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8. 기관원은 우월감을 느끼거나 당당해 하며, 재소자는 열등감을 느끼고 힘이 없으며, 똥가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죄의식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9. 두 집단 사이의 사회이동은 거의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적 거리는 매우 크며 흔히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호간에 대화도 특정한 톤의 목소리로 이루어진다.
10. 재소자는 의사결정의 정보유통이 통제되며 모든 개인의 욕구(needs)가 조직에 의해서 관리된다.<sup>134</sup>

고프만이 제시한 폐쇄조직에 대한 이들 특징들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시사를 준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북한이 하나의 거대한 폐쇄조직이라는 점은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국경과 직장은 출입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은 농부로 직장을 배정 받으며 직장을 바꾸기가

134 Ibid, pp. 6-7.

쉽지 않다. 공장의 노동자, 광산의 광부로 배정 받아도 직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각 직장의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개인이 선택한 시간에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동원되는 형태로 노동에 참여한다.

북한의 일반주민과 간부라는 두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계급간에는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 위의 폐쇄조직의 경우와 유사하다.

### 3. 물리적 통제를 통한 정치사회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를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과 설득, 선전과 선동을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물리적 통제를 통해서 강제하고 있다. 행위로 나타난 비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비판과 저항을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엄격한 감시와 처벌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자 한다.

#### 가. 물리적 통제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개인숭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 중에서 물리적 통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언어적 전략으로 설득을 하고 문예를 통하여 감동을 주어 개인숭배를 철저하게 하도록 사회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숭배를 거부하거나 잘못하는

개인에 대하여 물리적인 강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불경스런 언행을 하는 경우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거주지를 옮기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등의 방식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다. 당조직, 사로청 조직, 여맹, 인민반, 안전부, 보위부 등의 수많은 국가기구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히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 나. 암행감시

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억압적인 제도의 하나는 암행감시망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안전성, 국가안전보위부, 당조직에서 정보원을 각 직장, 각 조직에 운용하고 있다. 정보원은 기관에서 파견된 기관원이 아니라 일반주민 중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비밀리에 임무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주민동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누가 정보원인지 아무도 모르는 셈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명 중 1명이 정보원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명 중, 또는 10명 중 1명이 정보원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주위사람을 항상 정보원으로 가정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에는 분명하다. 북한주민들이 암행감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이를 의식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행하는 말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짧은 혀 잘못 놀려 긴목 달아난다”

“입술은 생각을 덮어두는 덮개”

“내가 까불어서 세상이 바뀌나”

또한 북한주민들은 “자기 등짝도 못민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고 한다. 방에 혼자 앉아서도 김정일에 대한 불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감시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부모들이 외출하는 지식들에게 자주 타이르는 말의 하나는 말조심하라는 것이다.

주로 언동에 대한 감시이다. 실제로 말을 잘못하여 고발당한 사람들이 많다. 남한에 귀순한 사람들 중에는 중류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말을 잘못하여 당국의 숙청조치로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가 남한으로 탈출한 경우도 있고, 보위부의 출두 통지를 받고 남한으로 탈출한 경우도 있다.

북한주민들이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현실에 억눌린 채로 살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엄격한 감시와 처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Ⅶ.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성과 및 영향

지금까지 논의에서 경제난으로 체제의 붕괴위기에까지 처한 상황에서 도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아끼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개인숭배에 국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여 각종 제도와 기관을 운영하고 전 주민을 개인숭배를 위한 정치행사에 동원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 효과와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과와 영향으로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북한 지도부가 의도한 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다.

### 1.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 전략의 효과 분석

#### 가. 개괄적 평가

이 연구에서 발견된 개인숭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담론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자는 위대하고, 제도는 우월하다는 내용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하고자 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는 과거를 과다하게 활용하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찬 것으로 형상화하였다. 현재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위간부의 잘못,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자연재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조작하였다. 이것이 북한이 개인숭배를 위하여 사용한 담론구조의 주요 내용이다.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설득과 홍보를 통한 개인숭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김정일 정권의 유지는 물리적 통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대숙 교수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주민들의 지지보다는 북한군을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35</sup>

김일성 개인숭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들까지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체제의 정당성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여도 대량의 아사자를 낸 북한의 체제와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주민들은 김일성과 북한사회주의체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김일성에 비하여 훨씬 낮다. 북한주민들은 처음에는 김정일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고 한다. 후계자로서 완벽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김정일이 일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는 것이다. 김일성 사후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대책없이 군대만 찾다니면서 조국통일한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에 대한 좌절감,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이 그 원인이 된다. 일반대중들은 물론이고 인텔리 간부들도 김정일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많아졌다고 한다. 김정일이 인민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라는 의구심이 많아졌다고 한다.<sup>136</sup>

135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157.

136 이육병 (전 북한 남포 군수생산 지도원, 2002. 12. 귀순) 증언, 2003. 11. 9.

최근 들어서 고위급 상층부 간부부터 밑의 노동자, 농민까지 하나로 맥이 통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김정일 시대에 와서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무너졌으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간부들은 알면서도 현재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으니 겉으로 충성하며 노동자, 농민 하층은 고달프면서도 어쩔 수 없어 참는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의 하나는 망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없고, 공장기업소가 못 돌아가는 이것이 망한 것이라는 것이다.<sup>137</sup>

오랫동안의 개인숭배 정책과 정치사회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이후 김정일의 권위는 많이 무너졌다. 정치적 지지에는 이데올로기적 교육보다는 경제적 보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독재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 나. 전략별 효과 분석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조장하기 위한 많은 전략들 중에서 김일성이 유일하며 무오류의 지도자라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무오류의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게 된 데는 문제점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하위간부, 북한주민 개인, 외부, 그리고 자연재해로 전가한

137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 10 귀순) 증언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하위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경제난과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까지도 김일성의 정책은 옳았지만 하위 간부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래에 대한 휘황찬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 속아서 살아왔다고 인식하는 주민들이 매우 많다.

“먹을 것이 없으니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의식이 빨리 깬다)”<sup>138</sup>는 북한 주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적인 궁핍이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일깨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절대적인 궁핍 외에도 북한 당국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선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사상은 의식주와 연결되어 있는데 의식주가 전혀 사상을 따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주민도 사람인만큼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궁핍한데 통제만 하니까 분노가 생긴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민중이도 의견을 가진다”는 말로 주민들의 의식각성을 강조한다. 내놓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해도 친척 등 가까운 사람끼리는 말을 다 한다고 한다. 보위부와 안전원 중에 악질도 있지만 대다수는 자리만 지키고 기회가 오기만 기다린다고 한다. 보위부 및 안전원 중에서 많은 수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 가령, 검열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준다고 한다. 알려주지 않으면 ‘비행’에 대하여 최소한 못본 척 한다고 한다. 수십 년 동안 억압받고 살아왔기 때

138 서철영(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 8. 14 귀순) 증언

문에 이제 의식이 깨었다는 것이다. 한 귀순자는 “노동자라고 해서 무지렁이가 아니다, 무지렁이도 수십 명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는 말로 북한주민이 사상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현실을 꿰뚫어보는 의식은 있다는 것이다.<sup>139</sup>

북한주민은 심리적으로 갈등에 휩싸인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의견내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짓눌리고 헛되었다, 이것은 아니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상태를 흔히 북한에서 “이제 알 것은 다 안다”는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 또한 어떤 계층은 이미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났고 눈치보는 시기라고 한다. 의식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이다. 허위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김정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까닭은 물리적 통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서대숙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데서 가장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강력한 감시와 처벌의 물리적 통제이다.

## 2.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가 북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친 영향

북한이 최고지도자를 개인숭배하기 위하여 취했던 정책들이 북한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을 너무 많이 야기했다. 개인적으로는 불행하게

139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중국 단동주제 부대표 3등서기관, 1997.

12 귀순) 증언

하고 사회적으로 개인간의 불신과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비효율과 침체를 가져왔다. 각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가. 개인적 측면

### (1) 억압속의 삶

개인숭배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 개개인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은 경제사회적 위치에서 볼 때 중세의 농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직장에 대한 취업과 이직이 개인의 자유의사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취업은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노동의 의무로 되어 있다. 가령, 중세의 농노들이 영주의 토지에 종신토록 매어 있듯이 북한의 농민과 노동자들도 토지와 공장에 종신토록 매어있는 것이다.

경제사회적으로 구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구속은 더욱 심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숭배에 저촉되는 언행은 정치범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친구들끼리 우정의 만남도 정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우정이 깊어질수록 그리하여 마음속을 터놓는 사이가 될 수록 정치적 문제를 화제에 올려 지도자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지는 허용하여도 친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과 개인은 불신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터놓는 사회적 관계형성이 어렵다.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만족을 구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 정서적 만족은커녕 북한주민들은 감시와 처벌의 공포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경제사회적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 궁핍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생리적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량문제 해결이 안되는 궁핍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당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억압과 궁핍 속에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인데 문제는 그 불만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까지 금지되어 있다. 감정 표출까지 금지될 때 불행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감정금지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적” 교육의 이상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상에 속했다고 한다. 불안, 분노, 괴로움, 슬픔, 쾌감 등의 감정은 모두가 터부시되었다. 부정적 감정들은 피해야 하며, 기쁨은 자제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감정을 지배하고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상으로 통했다고 한다. 자신의 감정프로세스를 통제하고 배제하는 것을 아주 잘 배운 사람만이 당, 국가기구, 군의 간부로 등용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sup>140</sup>

북한주민들은 문제의 본질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표현은 못 하며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표현을 못한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거의 전부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sup>141</sup>

이러한 풀리지 않은 감정이 축적되어 한으로 남는다고 한다. 가슴이 콧 막히는 듯한 답답함과 분노와 억울함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감정의 소화불량이 응어리져서 한으로 남아 있다. 한이 맺힌 사람이 많다는 증언을 북한귀순자들은 자주 한다. 전쟁이 나면 총부리를 먼저 겨눌 사

140 한스-요하임 마즈, 「사이코의 삶: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pp. 89-91.

141 이재 (37세,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9. 3 귀순) 증언

람들이 주변간부에 많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상태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습성화되어 있으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된다고 한다.<sup>142</sup>

## (2) 사회심리성 질병

한으로 표현되는 심리적인 감정정체는 신경증이라는 질병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의학적으로 노이로제(신경증)는 불안신경증, 공포증, 강박신경증, 우울신경증, 신경쇠약, 격리신경증, 건강염려증 등의 징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체로 불안감 때문에 야기되는 징후들이다.

사회주의체제 사람들은 공권력에 대한 공포심,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많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심을 노이로제라고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귀순자들에 대한 증언에서 나타난 징후들을 볼 때 이러한 증후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두가지 종류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언제 내가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다. 일반적으로 억눌려만 살았기 때문에 심리 속에 공포심이 있다고 한다. 공개처형이 공포심의 주요 요인이 되며, 이웃의 사람들이 갑자기 행방불명되는 사건 등이 일상적으로 의식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현재와 같이 모든 행위가 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걸면 누구나 다 걸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항상 불안하다고 한다.<sup>143</sup>

---

142 김철대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1997.8 탈북, 1999. 1. 귀순) 증언

북한주민의 불안감은 또한 감시와 고발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누가 나를 감시한다는 공포심이 항상 있으며, 정치범으로 고발되면 가족이 다 처형된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러한 감정은 일반인들도 비교적 다 느낀다고 한다. 일반인 사이에도 정보원(눈까리)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싸여 있기 때문에 안전원이 지나가면서 “야!” 하고 부르면 “깜짝 놀란다”고 한다. 북한에서 안전원, 보위부원이 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파고 들면 법과 당규약에 안 걸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위부원이 “내마음까지 꿰뚫어 본다”고 생각할 만큼 무서워 한다는 것이다. 보위부원이 찾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리 오금이 저린다고 한다. 수용소에 잡혀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반체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발언을 잘못해서 체포되었기 때문이다.<sup>144</sup> 누구에게나 불안감이 항상 있다.

들쭉는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한다. 과연 내가 저 죽어가는 사람 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아시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존 그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가지 불안은 모두 죽음과 관련되는 불안감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일상생활형의 불안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의 불안이다. 신분이 높을수록 정치적 불안이 많고, 신분이 낮을수록 생활에 대한 불안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상층부는 이전보다 개혁개방의 후유증이 많아 더 많이 숙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생활을 많이 하는 등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은 감시원

143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 1. 귀순) 증언

144 이재 (37세,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9. 3. 귀순) 증언

을 더 많이 의식한다고 한다.<sup>145</sup>

## 심장신경증

북한주민의 공포감이 심인성 질병으로 발전한 것이 심장신경증이라는 질병이다. 북한의 결혼한 여성들의 80% 정도가 심장신경증<sup>146</sup>을 앓고 있

---

145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경리부, 1997. 12. 귀순) 증언.

146 심장신경증은 환자 자신은 심장장애 증상을 호소하지만 심장에 특별한 기질적 변화가 없는 신경증의 하나이다. 정신적 타격과 부정적 정서(우울, 불안, 공포, 근심 등)로 오는 고등 신경활동의 장애, 뇌하수체, 신상선 등 내분비선의 기능 장애와 신경 과민성 체질 또는 자율신경 긴장 등이 있는 사람과 폐경기 여성에게 잘 생기며 불면증, 피로 등이 유인이다.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숨기쁨, 심장부 통증, 현기증, 두통, 소화장애 등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쉽게 피로에 빠진다. 자각증상은 운동하면 없어지거나 적어진다. 때로는 정신을 잃거나 손발을 떤다. 심첨부에서 기능성 수축기 잡음이 들리고 폐동맥 판귀에서 제2음이 커진다. 심전도 소전에서는 p와 t파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http://foodbes.netian.com/ddeum/ddeumb/4.34.html>. 심장신경증에 대한 또다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심장에는 아무런 기질적 변화도 없는데 여러 가지 심장병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심장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심한 정신적 변동,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 내분비선의 기능장애 등이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신경이 예민하고 식물신경조절장애가 있는 사람, 여성들의 성숙시기, 폐경기에 잘 나타납니다. 증상은 자그마한 일에도 잘 놀라고 가슴이 활랑거리며 숨이 찹니다. 또는 심장부위의 통증,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등도 곁해서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른 일에 정신을 집중할 때에는 감소하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질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증세로서는 불안감이나 불안발작으로 괴로워하는 불안신경증, 심장병에 대하여 공포감을 갖는 공포증, 항상 자기를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심기증(心氣症) 및 히스테리 등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다는 증언이 있다.<sup>147</sup>

탈북자 김경혜의 증언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들은 대부분이 심장질환(심장신경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가정생활하는 여성들 중 심장병 안 가진 사람 없을 정도라고 한다. 사회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더하여 가정의 생활고 때문이라고 한다. 남성들은 심장신경증이 많지 않은데 여성들에게는 흔한 병이라고 한다. 한 여성 탈북자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내과의 사였는데, 내과질환 여성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우선 결혼 여부부터 물어본다고 한다. 결혼했으면 심장에 주목하여 진찰을 한다고 한다. 그만큼 결혼한 여성은 심장병이 많다는 것이다.

북한의 결혼한 여성의 심장신경증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고통이 어느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 나. 사회적 측면

### (1) 사회갈등의 조장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를 위하여 사용한 전략 중의 하나가 김일성과 김정일은 무오류의 지도자인데 반하여 문제의 책임을 하위 간부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극도로 우상화한 반면, 경제난 등 문제의 책임을 모두 하위의 간부들에게 전가하고 그들의 세도주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을 지속

---

<http://nanumpel.kr/nh4fr/fr020607.htm>

147 김경혜와 김난애의 증언

적으로 질타한 결과,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간부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만 혼자 신성하고 나머지 간부들이 대신 욕먹기식이다.

70년대 후계구도 준비할 때만 해도 김일성이 말하기를 “우리 세상은 노동계급이 세상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북한주민들은 이 말을 수긍했으나 80년대 들어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 세상은 간부들의 세상”이라고 말한다고 한다.<sup>148</sup>

최근 경제난의 상황에서 희소한 가치를 둘러싸고 간부와 주민간의 생존경쟁이 더 심화된 결과 두 계급간의 적대의식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자 권력이 많은 지배 계급은 정당한 방법과 부정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희소가치를 독점함에 따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10% 정도는 권력 있고 잘 사는 계층, 40%는 장사·밀수해서 그럭저럭 먹고사는 계층, 나머지 절반은 매우 어렵게 사는 계층이다. 북한 주민들은 80년대 초반까지는 간부와 비간부가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간부와 인민 대중간의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주민들이 “최근 3년이 해방 전보다 살기 힘들다, 원한에 사무친다”라는 등 절대적 빈곤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계층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간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의 불만은 주로 김정일 이하의 하위 간부들에게 지향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148 이철승 (가명, 전 북한 수련발전연구소 연구원, 1994년 귀순) 증언, 2003. 10.

주민들은 간부들에 대해서 내놓고 욕은 못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들끼리 모이면 심하게 욕을 한다. 간부들에 대해서 거의 다 도둑놈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아첨으로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로 평가한다고 한다.

백성들은 간부들을 죽일 놈이라고 말한다. 백성들은 조금만 장사해도 뺏고 단속하지만 간부들은 더 크게 장사해도 단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간부들은 기존의 제도와 조직을 활용하여 장사를 하는데, 사무실의 전화로 리의 창고장, 작업반장들에게 쌀 몇 가마를 보낼테니 차로 실어달라는 식의 부탁을 하면 밑의 사람들이 지시대로 들어준다고 한다. 장사를 해도 공식기관을 활용하여 장사를 몰래하되 신사적으로 장사한다. 국가의 제도에 기생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북한주민들은 간부들을 ‘지주같은 새끼’, ‘서림’ (임꺽정에 나오는 간신배) 등으로 칭하기도 하며 “우리나라는 중간다리가 문제야” 라고 비판하면서 앉으면 간부 욕하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 정면에서는 반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당일군과 싸우면 당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비판받기 때문이다.<sup>149</sup>

간부들의 허위보고 때문에 못산다고 간부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간부들이 개인 출세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잘되었다고 허위보고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간부들은 “모든 인민이 반동으로 느껴진다”며 거주지역에 쇠창살과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 일반 주민들의 불만 고조에 따른 신변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간부들은 주민들에게 맞이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주민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당간부, 보안기구들의 가족 등 핵심계층 엘리트들은 북한에 변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남

149 김정훈 (라흥철도공장 직명위원장, 2003년 4월 탈북) 증언, 2003. 10. 27.

쪽으로 도주할 사람들이라는 설도 있다.

북한에서 조직적인 저항은 일어나기 힘들지만 개인적 차원의 복수는 이미 곳곳에서 자주 일어난다. 안전일꾼, 보위일꾼, 당일꾼들에 대하여 테러를 가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sup>150</sup> 간부들은 밤시간 되면 밖에 다니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함경도 지역 일부에서 사보타지도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간부에 대한 적대행위의 예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외교부 관료들이 간부들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 때문에 출근시 적위대복을 입고 출근했다가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한다.

탄광의 경우 중앙당에서 간부들이 선전교양 나오면 돌아가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고 한다. “쌀을 가져와서 내 목에 묻은 석탄가루나 씻어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중앙당 일꾼들이 해당 지방에 가서 선전사업을 할 경우 인민들의 반감이 심한 정도가 마치 일제시기 직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 당 선전사업은 비공개적으로 요소 요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핵심 일꾼만 모아 놓고 강연하는데 그친다고 한다.<sup>151</sup>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반감 때문에 농촌위원회 부위원장들이 농촌 현지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한다. 인민들의 반감이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면서 장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철도안전원의 단속을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 북한 주민들은 철도안전원, 시장을 기동순찰하는 안전원을 제일 미워한다고 한다. 군인들도 주민들의 기피대상이다. 군

150 이관문(33세, 함북 평산군 원자력공업부 남천화학기업소 10·19광산 노동자, 1998. 5. 12 귀순) 증언

151 이수동(이탈리아주재 북한 공관원, 1998. 2 귀순) 증언

대가 지나간 자리는 남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닳치는 대로 훑쳐 간다고 한다. 이러한 군인을 토비라고 부른다고 한다.<sup>152</sup>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밑에서 잘 집행되지 않는다. 책임진 사람만 추궁을 받게 되므로 먹을 것이 있는 자리가 아니면 간부도 잘 하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간부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간부들이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다. 김정일은 자기 정책은 옳은데 하위 간부가 제대로 따라주지 못한다고 간부들을 자주 숙청한다고 한다. 결국 위에서 억누르고 밑에서 저항하기 때문에 간부를 해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sup>153</sup>

북한의 권력 엘리트층은 백성들의 이러한 불만과 잠재적 폭발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폐쇄주의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가능성은 일부의 복잡 군중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인민 대중에게 동시에 기대된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층은 자신들의 배타적 특권 행사와 백성들에 대한 억압정책이 야기시킨 사회갈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 대중들의 반발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인식에는 변화가 일고 있다. 90년대 충격적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비난의 화살이 중간층 간부에서 상층부로 올라가고 있다. 북한사람들은 김정일을 욕하고 싶지만 시어머니 역정에 개엿구리 찬다고, 김정일 욕하면 문제가 생기므로 중간간부

152 김난애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10 귀순) 증언

153 강국인 (회령, 전동기공장 자재 인수원, 2003. 2. 귀순) 증언, 2003. 7. 3.

들을 욕한다고 한다. 한번이라도 김정일을 의심하면 자기 신변에 위험이 생기므로 말을 못한다. 그런데 국경지대에서는 김정일을 내놓고 욕하고 있다고 한다.<sup>154</sup>

## (2) 이중구조의 사회의식 조장

맹목적인 개인숭배를 위한 정치사회화가 야기한 또하나의 사회문제는 국가의 권위를 냉소하고 조소하는 사회의식을 조장하였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감시가 없는 곳에서는 회의하고 반발하는 사회의식을 조장하였다. 억압적 체제에서 발달하는 사회적 성격의 하나는 실제 감정을 숨기고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허위감정을 표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유형은 이중의 도덕적 기준, 또는 제2의 사회의식, 이중적 사고, 분열된 인격, 또는 이중적 도덕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모든 용어는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공적 생활에서는 공식규범에 순종하지만, 개인적 일에서는 전혀 다른 자기방식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공식세계에서 광범위한 대중들이 공적 권위를 냉소하고 있다는 예가 되는 것이다.

공식체제가 아닌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공식체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아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심리적 이중성으로 주목할 만한 사회심리적 현

154 김난애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 10 귀순) 증언

상이다.

이러한 심리적 이반의 상태에서는 인민들은 점차적으로 공식 가치에 대하여 무관심해졌고, 사생활로 은둔했으며, 알콜에 탐닉하기도 하고, 물질과 개인적 관심에 몰두하기도 하고, 사회적 규범은 무시하며, 체제의 변두리에서 사는 방식을 발전시켰으며, 비합법적인 경제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성이탈(soft exit)이 사회주의적인 자이방어기제의 유형들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간부들에 대하여, 피지배자는 지배자에 대하여, 대중들은 정권에 대하여 “우리” 대 “그놈들” 이라는 이분법적인 계급의식을 발달시켰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의식의 근저에 있는 의식은 거부와 심리이다. 체제 지배자와의 통합이 아니라 분리 독립이다.<sup>155</sup> 그러나 이 상태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대안적 이념을 찾는다는 것은 이 단계에서 일반대중의 관심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목소리 큰 저항자라 하더라도 비판은 공식 정치 용어를 사용하며 그 내용은 더 나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언어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심은 공적 권위에 대한 무시와 냉소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주의체제에서 개인들은 억압적인 체제로부터의 정치적 처벌을 피하고 개인주의적 이익을 실현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세계에서는 공적 원칙을 따르지만 사적 세계에서는 개인주의를 지향하며, 공적 세계에서는 복종하지만 사적 세계에서는 비판한다는 면중복배(面從腹背)의 현상인 것이다. 사회주의에 특징적인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개념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

---

155 Yanqi Tong, “Mass Alienation Under State Socialism and After”,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8, No. 2, pp. 215-218.

다.<sup>156</sup>

얀키 통<sup>157</sup>은 사회주의 체제의 능력이 퇴화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조직을 떠나든지(exit), 불만을 표출하든지(voice), 아니면 조직에 남아있는 경우(loyalty)이다.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체제에서 극소수만이 탈주, 이민 등 경성탈출(hard exit)을 택했고, 불만을 표출(voice)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었다. 절대다수는 체제에 머물렀다. 충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체제로부터 연성이탈(soft exit), 또는 어떤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제2사회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 고의적으로 일을 잘못하기, 결근, 피병않기 등이 공식 임무로부터 회피하는 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sup>158</sup>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를 관찰한 하벨<sup>159</sup> 쉘라펜토크<sup>160</sup> 큐란<sup>161</sup> 같은 사회과학자들은 이를 표리부동 또는 행위양식의 이중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sup>162</sup> 제임스 스카트는 약자의 무기, 일상생활형의 저항, 저항의 기술이라

156 John Harsanyi, "Advances in Understanding Rational Behavior", in Jon Elster ed., *Rational Cho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157 Yanqi Tong, "Mass Alienation Under State Socialism and After", pp. 215-237.

158 Ibid., p. 219.

159 Vaclav Havel, et al., *The Power of the Powerless: Citizens against the State in Central-Eastern Europe* (New York: Sharpe), pp. 24-27.

160 Vladimir Shlapentokh, "Two levels of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9 (1985), p. 448.

161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p. 13.

162 자세한 설명은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서울: 나남출판, 1995), 제2장 참조

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였다.<sup>163</sup>

그래서 북한주민들의 행위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감정과 조작된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 실제 감정은 매우 순수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는 조작된 감정이 많다는 것이다. 공식적 석상에서 하는 일, 사석에서 하는 일이 완전 별개라고 한다. 가령, 사상학습시간의 태도와 10분간 휴식시간에 하는 말과 표정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북한의 체제에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져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하다고 한다.

또 다른 예는 김일성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실제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사고방식이 몸에 베여있다고 한다.<sup>164</sup> 국가는 사회주의를 고수하지만 인민들은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국가는 집단주의를 고수하지만 인민들은 개인주의에 탐닉해 있다. 인민들이 국가의 간섭을 받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본주의식으로 산다. 이것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지난 10여 년간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다. 일찍부터 장사한 사람은 괜찮게 살지만 당만 믿고 사는 사람은 죽게 되었다. 조총련, 중국 친척에게서 장사밑천을 얻어서 장사한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계층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가 체제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통치이념인 주체사상도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정치

---

163 James Scott, *Weapon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James Scott,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164 이재 (37세,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9. 3 귀순) 증언

학습 교원의 말끝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것도 자기자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행동으로 연결시켜주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주민들은 노동당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등 노동당이 운명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기본명제는 한마디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다, 자기운명을 개척해가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 다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가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것만 생각한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식량을 구입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sup>165</sup>

#### 다. 정치적 측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권력의 공고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김일성의 권력의 공고화와 김정일로 권력을 승계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김정일의 권력 유지에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측면도 있다. 김일성의 카리스마가 워낙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후계자 김정일이 김일성 만큼 큰 인물로 개인숭배 되기는 어렵다. 김일성의 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김정일이 아무리 구두를 높이 신어도 어깨를 나란히 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김일성의 빛이 너무 밝게 우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일 스스로 빛을 발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김정일에게 김일성은 이제 짐이자 장애물이다. 뛰어넘기가 너무

165 서철영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 8. 14 귀순) 증언

어렵다.

전통적으로 최고지도자들은 전임자를 격하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운동함으로써 자신의 설자리를 만들었던 것은 스탈린이 너무 과도하게 우상숭배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후르시초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화된 김일성의 권위를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어느정도 효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정일 홀로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 축적해 놓은 모든 모순과 오류를 김정일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은 위대하다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김정일의 과오로 인식되고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시점인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난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김정일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모두 김정일의 잘못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에 대한 평가도 깨어지게 되어있다. 개인숭배를 위하여 왜곡했던 역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일성의 평가는 벼랑으로 실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쟁이 미국의 침략으로 발발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주도로 전쟁을 도발했다는 사실만 밝혀져도 김일성의 정당성의 근거는 송두리째 추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 라. 경제적 측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는 경제부문에서 치명적 결과를 야기하였다. 북한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게 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숭배에 국력을 탕진하였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의 상당부분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숭배를 위한 이데올로그 양성, 이데올로그 교육, 정치적 대형건조물 건축 등에 낭비한 것이다. 결국 노동 생산성도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이데올로그와 간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산직 노동자의 비율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노동하는 사람은 1명에 붙어서 기생하는 사람이 8명이라고 한다. 불필요한 제도와 불필요한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sup>166</sup>

둘째,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위하여 소련과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자력갱생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자력갱생 전략이 아니라 정치 권력적 논리에 근거한 폐쇄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자력갱생을 발전전략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셋째, 개인숭배 위주의 정책논리에서 주민들은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 북한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경제적 생산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서 직업이 배치되고 직업에 따라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충성하는 척만 하면 되지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노동거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집단노동을 나가면 삼을 땅에 박아 놓고 발딛고 서서 말장난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요령주의, 눈치놀이, 땡땡이”가 발달해 있다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은 없으며 자발적인

166 김난애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10 귀순) 증언

충성심으로 맘홀리며 뛰는 자가 없다고 한다. 다만 입당을 앞두고 있는 자들만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한다.<sup>167</sup>

북한의 노동자들은 무단결근과 이탈이 많다. 가는 곳마다 검문소가 있고, 열차칸에도 검열하고, 숙박하는 곳에도 숙박등록 수단이 있지만 그것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 출근 안하면 쌀도 안주고 휴가에서 제외하며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안전부가 개입하지만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은 무단결근이 많다고 한다. 증명서를 돈주고 만들기도 하고 뇌물 등 여러수단으로 검문을 통과한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의 거부태도는 노동현장 뿐 아니라 사회질서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사회통제를 강화하지만 잘 안된다. 사회안전성의 범죄 처리 능력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신고체계가 잘되어 있으나 통신, 가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안전성 자체가 느슨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회안전성이 뇌물을 받는 등 부패가 많으나 뇌물을 주는 대상은 봐주지만 처리할 것은 다 처리한다는 것이다. 사회통제가 무너지는 초기단계에 있으나 뇌물 받고 배부른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다.<sup>168</sup>

---

167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 10 귀순) 증언

168 강국인 (회령, 전동기공장 자재 인수원, 2003. 2. 귀순) 증언

## VIII. 경제난 및 개혁·개방이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에 미친 영향

경제난이 북한 주민들을 재사회화시키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의 노력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경제난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개혁개방의 조치 중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북한주민들의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경제난과 개인숭배의 위기

북한은 오랜 경제난의 여파로 체제전반에 걸쳐서 침식(system erosion)이 일어나고 있다. 정권초기부터 건설한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비사회주의'라고 불리는 비공식부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도 침식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교육, 직장교육, 사회교육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정치사회화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면 생계가 보장되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었다. 자신의 삶과 운명도 미래도 당과 국가와 같이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에 의존적이었고 당과 수령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 당과 수령에 충성하면 가장 가치로운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정부가 개인의 사회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배급제가 폐지되었다. 이제는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국가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내팽개쳐진 것이다. 국가에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국가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연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연금을 받더라도 몇십 배 올라가 물가 때문에 종전대로 받던 연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북한주민들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이제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상품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에 살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체제가 변화된 것이다.

과거에는 입당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관문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일반주민들에게는 당원자격이 별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당에 별 관심이 없다. 가치의식 변화로 나타난 제도변화의 전형적인 예의 하나는 청년들의 군대기피 풍조이다. 북한 청년이 군복무를 선택하는 기본 동기는 입당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입당해서 당원이 되어도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길고 고생스런 군생활을 거치기보다는 돈을 쉽게 버는 길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군대기피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은 2003년 3월 개최된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 군사의무복무제로 전환하였다.

직장을 통제하고 배급제로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계 자체를 국가의 장악 하에 두었으나 국가가 주민들에게 월급과 배급을 주지 못하는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자 국가의 주민에 대한 통제능력이 상실된 것이다.

직장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암시장으로 몰려나가 장사를 함으로써 생계를 꾸리게 된 주민들은 암시장을 통하여 돈을 벌고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하였다.

암시장 경제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돈이 자유를 주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통제체제가 와해됨으로써 인간을 자유롭게 하였던 것이다. 더 이상 중세의 농노가 아닌 것이다. 돈을 버는 대로 자기 능력껏 살게 되었다. 권력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암시장에서 돈을 버는 데서는 개인의 재량권이 높아졌고, 개인의 능력으로 번 돈은 개인을 자유롭게 한 것이다. 돈이 사회를 공정하게 한 셈이다.<sup>169</sup>

결국은 돈이 권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당에 입당하기 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방향으로 가치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계획경제가 가동되고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기만 하면 장래가 보장되고 생계가 보장되었지만, 공식경제체제가 마비된 이후 주민들의 사고방식은 급속히 변화하였다.

더욱이 과거의 신적인 존재였던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꿈에서 깨어나듯이 현실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절대적 능력을 가진 신이었으나 신은 죽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절대자에 대한 우상화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교하는 의식이 생성된 것이다. 절대적 사고에서 비교적 사고가 싹트게 된 것이다. 비교의식은 절대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깨뜨리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셈이다.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배급제가 아닌 임금노동제에 의하여 받은 임금으로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은 이제 수령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노동의 산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개인숭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69 김난애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10 귀순) 증언

## 2.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정치사회화에 미친 영향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채택하게 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기존의 북한의 정치·사회의 관계를 크게 변형시켰으며 새로운 정치사회화를 수반하고 있다. 2002년 7월에 있었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몇가지 혁명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7·1조치의 핵심은 그동안의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무상배급제를 폐지하였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고 이 임금으로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임금노동제를 도입한 것이다. 자본주의와 매우 유사한 방식의 분배체계가 도입된 것이다. 주체사상 등의 이념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던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생산한 만큼의 임금을 주어서 시장에서 구매하게 한 제도이다. 7·1조치가 북한주민의 사회의식에 미친 영향을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 가. 국가의존적 의식의 약화와 자력갱생적 의식의 강화

7·1조치 이후 주민의식의 변화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생계를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등의 국가 의존적 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생계를 벌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될 것으로 인식하던 인식이 배급제 공식 폐지 이후에는 경제가 호전되어도 배급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력갱생의 의식은 장시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양을 제외한

지방은 대부분이 공식부문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길은 장사를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장사를 해야 먹고 산다는 인식은 90년대 초반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로서의 장사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평양의 군고구마 장사와 같이 기업형의 장사가 나타나고,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을 설치하는 등의 양성화 조치도 뒷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장사를 지속하기 위한 논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사를 해도 집단적 기관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된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에 보답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사회주의 장사는 자본주의 장사와 다르다는 논리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하여 북한 관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대세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며, 장사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어졌다고 한다. 북한 간부들이 7:1조치에 대하여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공급이 안 되어 가격이 상승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경제개혁’이라고 칭해도 좋다고 김정일이 지시했다고 한다. 김용순이 비공개석상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썼던 적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나가서 개혁이라는 말을 써도 좋다고 허가받았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sup>170</sup>

그런데 보위부는 장사에 대하여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 요소 통제가 기관의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70 정창현(중앙일보 기자), 통일연구원에서의 간담회 내용, 2003. 7. 10.

## 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인식의 확산

배급제도가 지난 50여 년간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에게는 배급제는 곧 사회주의를 의미하였고, 사회주의는 곧 배급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런 배급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90년대 중반이후 배급의 양이 줄거나 중단될 때에는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다시 원상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없어졌다.

북한에서 7·1조치를 통하여 명실상부하게 배급제도가 폐기된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는 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 장사하지 않고 배급타는 제도

비사회주의 = 장사해서 먹고사는 제도

이런 인식 하에서 북한주민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현실에 대하여 “낮에는 사회주의하고 밤에는 자본주의한다”는 식으로 표현한다.<sup>171</sup> 그렇다면 김일성 사후 95년 이후 배급을 안 주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비사회주의로 먹고 살았던 셈이다. 북한에서는 장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사회주의 그루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것을 보아도 장사는 곧 비사회주의이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대부분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171 박0섭 (회령, 피복공장 자재인수원, 2002. 12. 탈북) 증언, 2003. 7. 18.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그 대안은 사회주의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의 개념이 변경되고 있다. 최근 30권짜리 「조선대백과사전」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를 집단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사회이며, 그 내부의 협동적 소유, 국가적 소유 상관없이, 집단적 형태로 운영되면 사회주의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사회주의의 본질 및 기본속성은 집단주의라는 것이다. 시장요소 = 자본주의, 북한의 시장화 = 자본주의화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소유의 여부로 정의하지 않고 집단주의 여부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1994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연설이 사회주의를 집단주의로 재정의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력사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인류사회 발전의 역사적 총화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극소수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으로 전환시키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적대적 모순을 극도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현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것이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활동하여야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으며 자

주요요구를 실현할수 있다.<sup>172</sup>

#### 다. 사상 증시에서 돈 증시 및 물신주의로의 변화

배급제도가 폐지되고, 임금노동제가 도입되었으며, 2003년 3월에 들어서는 종합시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을 크게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물가가 천장부지로 뛰어 오르고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현물 배급제에서 화폐경제로 완전히 이행함에 따라 돈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사상이나 이념은 2선으로 후퇴하고 물질 우선의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월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는 월급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이전의 월급은 용돈 개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활비 개념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배급체제 하에서는 현금이 별 의미가 없었던데 비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화폐경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7·1조치를 계기로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기조의 변화를 7·1조치가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1조치 이후 북한의 간부나 안내원들이 남한 방북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비교해 본다면 큰 변화이다. 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과거보다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북회담에서 북한측이 금강산에서 회담하기를 고집하는 이유도 해당기관에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

172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1994년 11월 1일, 「김정일 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54-455.

해서라고 한다.

#### 라.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규범인 집단주의는 국가에서 배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배급이 중단되고 개인들이 각자 능력대로 수단대로 장사, 밀수, 부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인주의는 생존의 원리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주체사상의 핵심명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명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이제는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북한주민들에게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공식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을 탈출하는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주체사상에서 자기 운명은 자기자신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결행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집단주의가 북한 사회주의의 핵심 규범인데 집단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침식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러한 시대적 대세와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IX. 결 론

이 보고서는 대량아시자가 발생하는 경제난을 피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탈북자들이 김일성을 신적인 경지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식하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 전략을 분석하고 개인숭배 정책이 북한사회 전반에 미친 효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경제난이 그 동안의 개인숭배와 정치사회화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의 개인숭배의 전략으로서 특징적인 것은 항일무장투쟁 지도자상, 무오류의 지도자상 형상화, 인식의 시제를 통제하기, 책임전가, 물리적 통제 등이다. 최고지도자는 무오류의 지도자로 허위로 형상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현재에 불만을 갖는 것을 억제하고 대신 과거 일제시대의 어려움과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을 들추어 내어서 오늘의 현실을 은폐하게 하거나, ‘사회주의 완전승리’ 또는 ‘10대전망목표’와 같은 구호를 내세워 미래의 허상을 쫓아서 살도록 하였다.

현재의 문제점이나 모순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잘못된 책임은 모두 하위간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거나, 북한 주민 개인의 책임, 미국과 같은 외국의 책임, 나아가서는 자연재해로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하여 의심이나 반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표면으로 드러난 불만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게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최고지도자에 대해서는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로 개인숭배하게 한 반

면,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졌다. 김일성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김일성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무뇌의 인간으로 교육시키고자 하였다. 김일성을 개인숭배 하도록 논리적 조작을 하였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은 위대한 지도자로 부각하면서 북한 주민개인들은 이러한 우상숭배의 기법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비판적인 인식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김일성의 연설문만 읽도록 분서갱유를 한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서적마저 모두 금지시켰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전략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경제난은 김일성의 책임이 아니라 하위 간부들의 책임이거나 미제의 책임이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만 그것도 매우 많이 왜곡되었고 또한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6·25전쟁을 김일성이 주도하여 일으킨 것도 북한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우상숭배를 비판하고 수정주의로 개혁을 할 때 김일성은 개인숭배를 지속하기 위하여 소련과 관계를 끊고 자력갱생이라는 명분하의 폐쇄주의 발전 전략을 고집한 결과 경제가 침체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이다. 경제난을 단지 하위간부의 부정부패와 미제의 경제봉쇄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개인숭배 주도의 북한 통치가 김일성을 개인숭배하게 하여 김일성의 정권 유지에는 기여하였지만 북한체제의 각 부문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북한주민의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불행한 삶

을 살고 있다. 중세의 농노에 유사한 사회경제적 신분제 속에 살고 있으며, 불안과 공포 때문에 기혼여성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심장신경증이라는 심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김일성 혼자만 무오류의 지도자이며, 모든 문제점은 하위 간부의 탓으로 돌린 탓에 북한의 간부들은 모두 이기주의, 부정부패, 세도주의 등 문제투성이의 집단으로 몰려 있다. 그래서 북한의 간부층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적대감은 매우 크며 이것은 곧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김일성을 너무 위대한 지도자로 개인숭배한 탓에 김정일은 김일성의 위대성과 빛에 가려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김일성은 위대하지만 김정일은 그렇지 못한 지도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김일성 개인숭배가 김정일의 권력유지에는 장애로 작용하는 점도 있는 것이다.

개인숭배는 경제난에도 큰 책임을 지고 있다. 국력을 개인숭배에 탕진한 탓에 경제가 위축되었으며, 폐쇄주의적 정치적 논리 때문에 경제를 폐쇄주의적으로 운영하여 오늘의 경제난을 초래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의 개인숭배의 노력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그 효과가 와해되고 있다. 경제난이라는 구조적인 새로운 요인이 북한 주민들을 재사회화시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사회주의의 원형에서 비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인숭배 정책의 결과 김일성의 권력공고화와 김정일 권력승계에는 기능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한에까지 귀순해온 탈북자들마저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로 숭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일의 정당성은 급속히 실추되었다. 서대숙 교수가 지

적한 바와 같이 김정일 정권은 국민적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선군정치라고 불리는 계엄정치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숭배를 위한 사회화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강제에 의하여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숭배에 의한 통치방식은 전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 1인의 개인숭배를 위하여 북한주민 개인,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심지어 정치적 측면까지도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게 된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지난 반세기의 개인숭배와 정치사회화의 효과는 최근의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난으로 지난 50년간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졌다. 경제난과 같은 구조적 변수들이 북한주민을 완전히 다르게 재사회화시켰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개인숭배 전략의 본질과 그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숭배의 테크닉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때 북한주민들은 북한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아직도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전략의 핵심 중의 하나인 체제의 문제점을 하위간부와 외부 및 자연재해의 탓으로 돌리는 선전선동 전략에 기만당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숭배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북한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숭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정권의 논리와 국가이익의 논리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김일성이 개인을 이상숭배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화하고 세습한 것이 국가이익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 건설」.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상: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서울: 연구사, 1994.
-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서정남. 「북한의 영화탐사」. 서울: 생각의 나무, 2002.
- 양호민. “북한의 개인숭배 재고” 「북한학보 26」. 서울: 북한연구소, 2001.
- 이정식. 스킨라피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6.
-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_\_\_\_\_.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권. 서울: 중앙일보, 1991.
- 한스-요하임 마즈 저. 송동준 역. 「사이코의 삶: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서울: 민음사, 1994.

### 2. 영문

Erikson, Erik.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 Company, 1980.
- Goffman, Erving.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1961.
- Harsanyi, John. "Advances in Understanding Rational Behavior" in Jon Elster ed. *Rational Cho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 Havel, Vaclav. et al. *The Power of the Powerless : Citizens against the State in Central-Eastern Europe*. New York: Sharpe.
- Kolakowski, Leszek.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Kuran, Timur.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 Lenin, V. I. *State and Revolution*. Lenin's collected Works. vol. 5.
- Miliband, Ralf.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 Perlmutter, Amos. *Modern Authoritarianism :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김문조·임현진 역, 「현대국가와 권위주의」. 서울: 정음사, 1986.
- Scott, James. *Weapon of the Weak :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 \_\_\_\_\_.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 Hidden Transcrip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 Scalapino, Robert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Shlapentokh, Vladimir. "Two levels of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9, 1985.

Tong, Yanqi. "Mass Alienation Under State Socialism and After."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8. No. 2.

### 3. 북한문헌

근로단체출판사.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시여」.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각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김정일 선집」 각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_\_\_\_\_. 「인간개조리론」 (주체사상총서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지평, 1989.

\_\_\_\_\_. 「영도체계」 (주체사상총서 9).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지평, 198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락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삶의 권리」. 2001. 1. 18 북한 조선중앙방송 방영.